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정선군 JEONGSEON COUNTY (사)정선군농업회의소

정선군농업회의소 (사)정선군농업회의소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Jeongseon County Storie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www.
jeongseon.go.kr

“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정선군 JEONGSEON COUNTY (사)정선군농업회의소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Jeongseon County Storie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CONTENTS

08 귀농·귀촌 준비과정(7단계 절차)

14 정선군 읍·면별 소개 / 정선군 지도

36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영농 교육

44 정선군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생활·복지

58 농가주택(시골집) 구입 시 장점·단점·주의할 점 및 농지원부

70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167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소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귀농·귀촌 준비과정

7단계 절차

01

01

귀농·귀촌 준비과정

귀농 · 귀촌 7단계 절차

1단계 귀농·귀촌 정보를 수집하자!

귀농 · 귀촌을 준비할 때는 귀농 · 귀촌 정책지원, 교육과정, 그리고 선배 귀농 · 귀촌인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보를 습득 및 선택하기 어렵다면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게 좋다.

대표적으로 예비 귀농 · 귀촌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정보센터(www.returnfarm.com)**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정보센터 콜센터(1899-9097)**를 통하여 개별상담도 할 수 있다.

2단계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힘든 정착 과정에서 가족의 응원과 도움은 절대적이다.

가족이 동의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먼저 내려가는 경우 적정한 기간 내에 가족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고립감이나 외로움, 혼자 일하는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어 정착 과정이 쉽지 않게 된다.

3단계 어디에 정착할까?

지역 선택 시 연고지가 있다면 연고지로 가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지역 사람들과의 융화 문제나 부족한 영농기술에 대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연고가 없이 귀농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농지가격은 적정한지, 또 나를 도와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체크 해보면 좋다.

실제 귀농 · 귀촌을 하였을 때 큰 자금을 들여 농지나 주택을 구입해 놓으면 옮기기가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좀 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큰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4단계 주택과 농지를 확인하자!

주택과 농지를 확보할 때는 자신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와 구매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에 들어가면 전국 농지의 실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나 구매가 가능한 농지정보도 알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반드시 문서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소유권 확인 등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은 배수 문제, 토질, 농기계 진입에 필요한 도로, 주변 송전탑이나 농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 여부 등으로, 지역민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좋은 땅이나 빈집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좋다.

주택과 농지는 이렇게 최소 3~4군데를 비교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5단계 어떤 작물을 심을까?

귀농 전에 작물을 꼭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귀농 후 작물이 변경되는 경우가 더 많다.

방송에서 누군가 특정 품목으로 성공했다고 나도 같은 품목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소비자 트렌드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작물 선택을 위해서는 작물특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작물마다 자라는 시기, 노동력 투입 정도, 필수시설, 농지 규모, 필수기술, 자금회전주기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의 여건과 정서에 맞는 작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6단계 영농기술을 습득하자!

작물을 선택했다면 온·오프라인 강의, 현장실습 등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 농가 견학 및 현장 체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농촌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우수사례학습, 농업정책 등의 기본교육을 받았다면, 그다음 단계로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영농기술 교육을 수강하거나, **농사로 농업기술포털(www.nongsa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귀농 성공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강사나 동급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여 일거양득의 준비과정이 된다.

7단계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사를 직장생활과 비교한다면, 정년이 없으며 작목이나 경영규모 등도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

하지만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이 소요되며 희망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귀농인은 이를 고려한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한다.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 과정에서 계획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고민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귀농 방정식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정선군
읍·면별 소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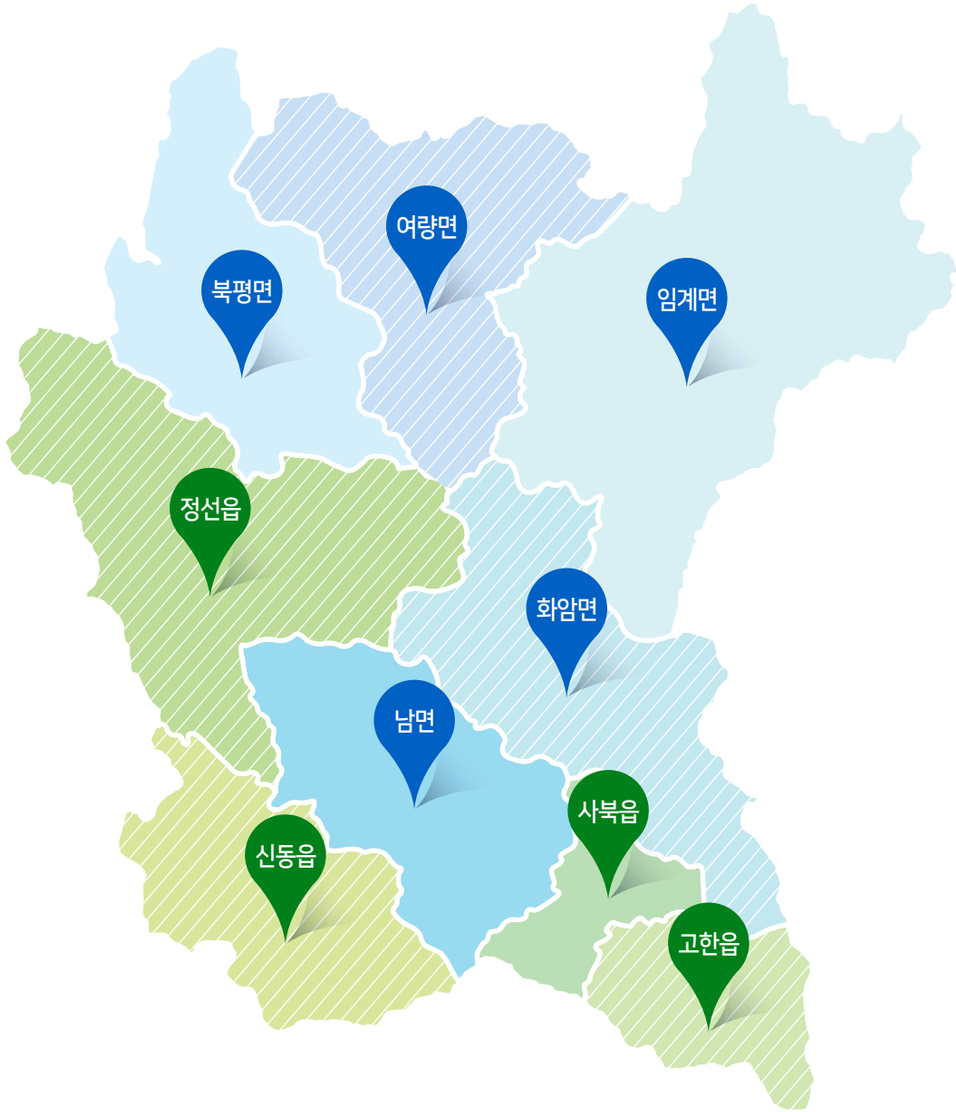
02

정선군
읍·면별 소개

정선군 읍 · 면별 대표 농산물, 관광명소 및 축제,
문화생활, 마을소개

* 정선군은 4개 읍(정선읍, 신동읍, 사북읍, 고한읍),
  5개 면(북평면, 여량면, 임계면, 화암면, 남면), 183개리가 있습니다.
* 정선군 각 읍·면 대표 농산물, 관광명소 및 축제, 문화생활 등 간단한 마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 관련 정보는 정선군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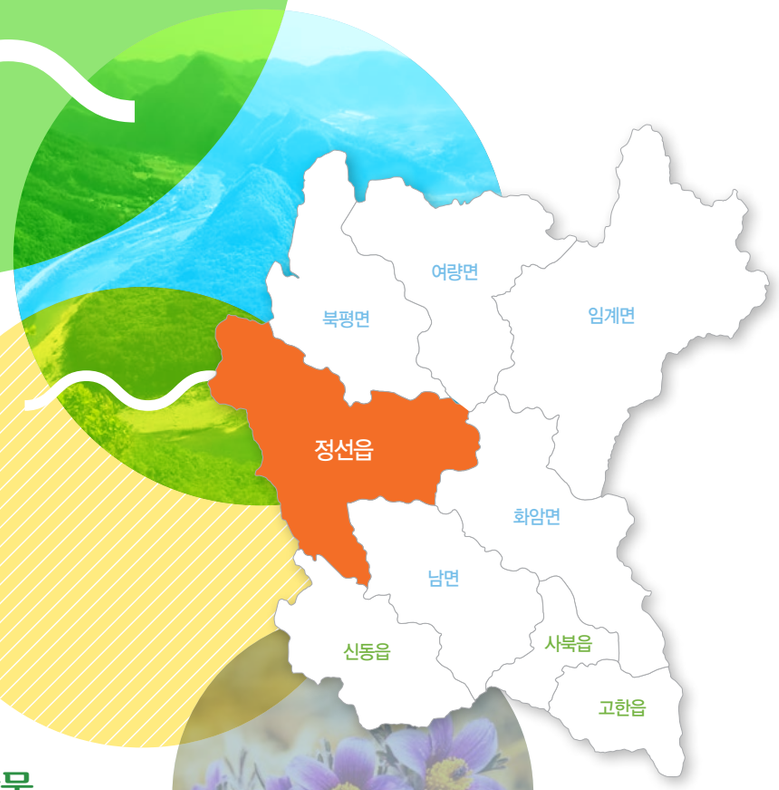
정선군 지도



정선읍

Jeongseon-eup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주 대표 농산물

사과

콩

더덕

황기

마을소개

정선읍은 우리나라 산맥 중 가장 큰 줄기인 백두대간이 병풍처럼 둘러 싸고 있고, 수많은 계곡의 냇물이 모여 한강의 상류인 조양강을 흐르는 산간 지역입니다.
정선읍은 중요 관공서(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가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관광지가 중심되어 있어 문화생활 및 의료(병원, 약국)적인 부분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정선 5일장터

관광명소 및 축제

정선 아리랑제, 정선 오일장, 아라리촌, 동강할미꽃축제, 정선 곤드레 산나물 축제, 병방치 스카이 워크 & 짚와이어, 캠핑장, 가리왕산 휴양림

문화생활

정선병원, 정선군보건소, 정선교육도서관, 정선아리랑센터(공연 & 박물관), 아리아리정선 시네마, 아리랑 키즈카페, 마루공동육아나눔터,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

정선 아라리촌

신동읍

Sindong-eup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타임캡슐공원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

마을소개

신동읍은 백두대간의 연맥을 이루고
힘차게 뻗은 두위봉과 백운산 자락에 휘감겨
평화롭고 따듯한 지역입니다

주 대표 농산물

배추

사과

무

황기

관광명소 및 축제

동강 옛길 생태 탐방로, 연포분교 생태학교
(영화 '선생 김봉두' 촬영지),
타임캡슐공원(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백운산,
동강 전망 자연휴양림

연포분교 생태학교
(영화 '선생 김봉두' 촬영지)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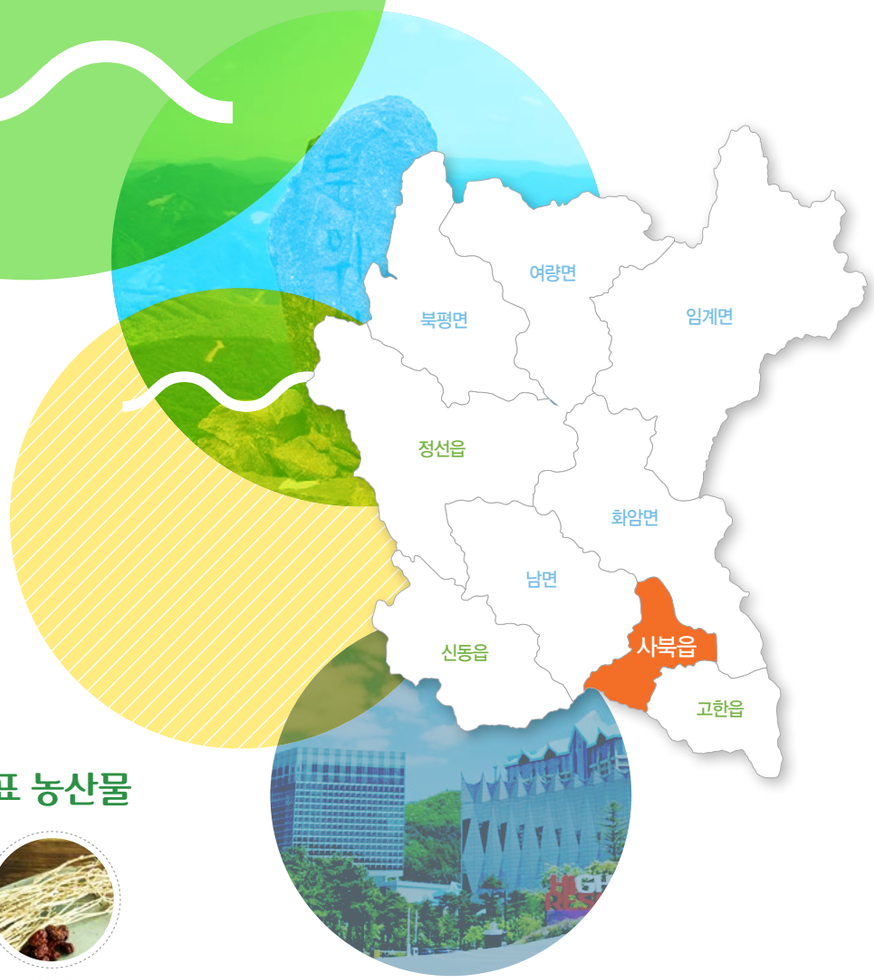
신동보건지소, 가온누리돌봄센터

친환경 대중 골프장(조감도)

사북읍

Sabuk-eup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주 대표 농산물

더덕

황기

마을소개

사북읍은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병풍처럼 드리우면서, 해발 600m 이상의 산간협곡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중의 고장입니다.
사북읍은 한때 석탄산업의 중심지역이었으나, 2004년 10월말 (주)동원탄좌사북광업소의 폐광 이후 현재는 국내 유일의 출입가능한 카지노인 (주)강원랜드가 소재하며, 깨끗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한 4계절 종합 휴양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 및 축제

백운산, 지장산, 노목산, 두위봉,
강원랜드 리조트 하이원 스키장, 골프장,
호텔, 카지노, 하이원리조트

하이원리조트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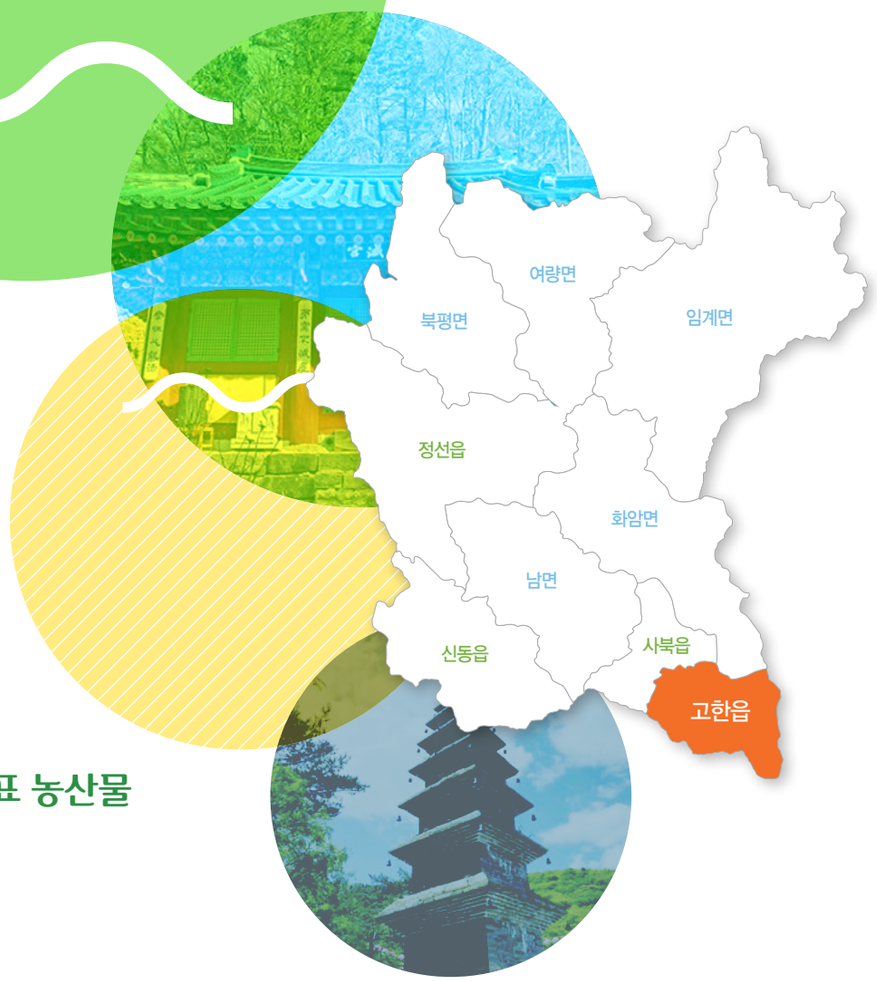
아리키즈카페,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사북공공도서관, 고한사북보건지소

청년몰

고한읍

Gohan-eup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주 대표 농산물

배추

마을소개

고한읍은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한 산중 고장으로 태백산의 진산(鎭山)인 해발 1,573m의 함백산 자락 700~1,100m에 이르는 수려한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마을 놀이터 같은 산중도시입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관광명소 및 축제

정암사, 수마노탑(국보 제332호 승격), 함백산 야생화 축제, 골목길 정원 박람회, 마을호텔 18번가(전국 최초)

정암사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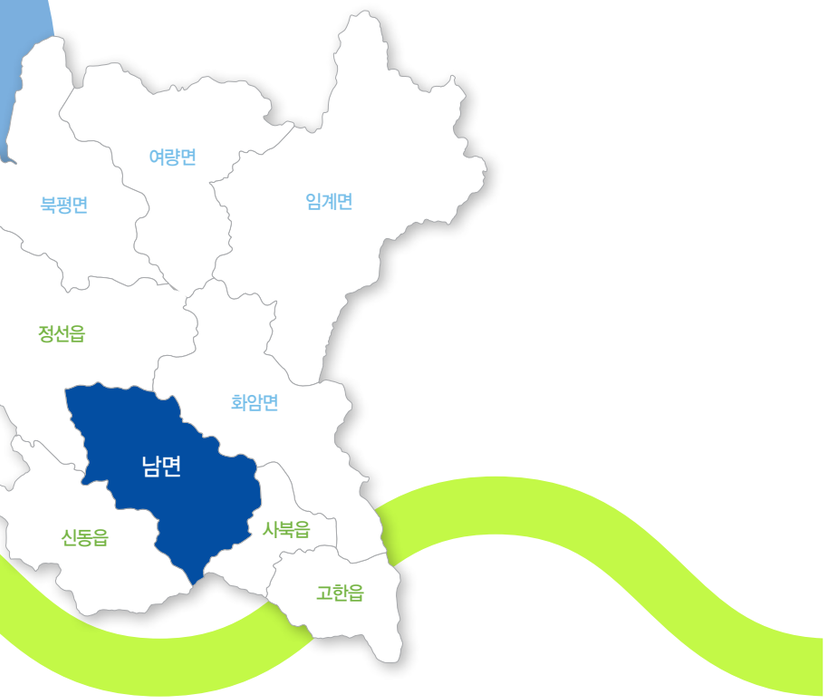
고한 시네마,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고한사북 보건지소, 흑빛공동육아나눔터, 고한다함께돌봄센터, 흑빛지역아동센터

마을호텔 18번가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남-면

Nam-m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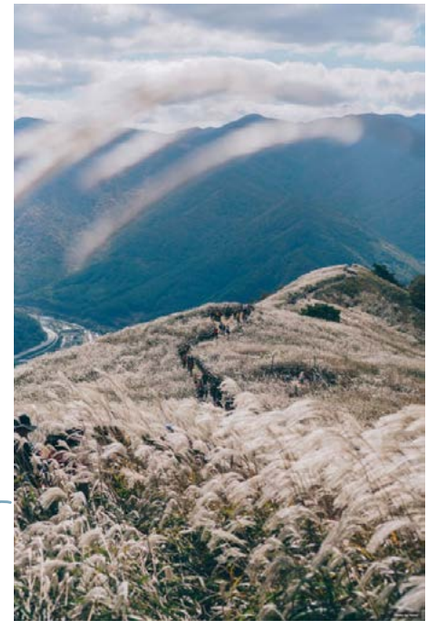
주 대표 농산물

콩

더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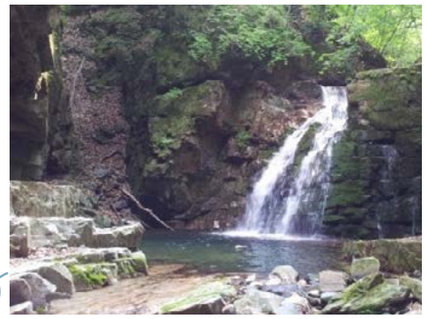
마을소개

남면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 거칠현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면 소재지인 문곡리를 중심으로 5개의 법정리와 15개의 행정리, 8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이 87%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둥산

관광명소 및 축제

민둥산 억새꽃 축제, 두위봉, 삼내약수, 고병계곡, 자뭇골 유원지


고병계곡

문화생활

남면보건지소, 별빛달빛지역아동센터, 개미들마을

개미들마을
(체험마을)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화암면

Hwaam-myeon

주 대표 농산물

더덕

배추

토마토

마을소개

화암면은 그림 같은 절경 화암 8경을 품고 있는 마을로, 화암 8경 중 5경이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인 〈화표주〉를 실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절경 화암 8경

- 1경 화암약수
- 2경 거북바위
- 3경 용마소
- 4경 화암동굴
- 5경 화표주
- 6경 설암
- 7경 몰운대
- 8경 광대곡

화암동굴

관광명소 및 축제

화암동굴, 화암약수, 그림바위예술발전소, 곤드레만드레 체험마을, 화암 카트체험장

화암약수

문화생활

화암면보건지소,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

화암카트체험장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북평면

Bukpyeong-myeon

주 대표 농산물

벼

토마토

옥수수

마을소개

북평면은 남평리 일원의 친환경 쌀,
장열리 토마토 재배단지 등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또한 높은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개최도시이기도 합니다.
지역 특성상 가까운 정선읍, 여량면, 임계면,
강릉, 진부 IC, 진부역으로 이동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타 읍면처럼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적당한 인구의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으며 귀농 · 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마을입니다.

관광명소 및 축제

정선 토속음식축제, 가리왕산, 난향로원,
상정바위, 항골계곡, 봉화치, 숙암계곡,
오음봉, 백석봉, 상원산, 백석폭포,
인형의 집, 로미지안가든(카페＆수목원),
나전역(1박 2일, 뽕숭아학당 촬영지)카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할강장 곤돌라,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
파인포레스트 정선 알파인
리조트, 쌀가공체험장
'정선다움'

쌀가공체험장
'정선다움'

문화생활

북평면 보건지소,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북평면 지역아동센터

나전역 카페
(1박 2일, 뽕숭아학당 촬영지)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여량면

Yeoryang-myeon

주 대표 농산물

콩 옥수수 고추 감자 고랭지 채소

마을소개

여량면은 남을 · 여(餘), 식량 · 량(糧)으로 오곡이 풍성하여 식량이 남아돌 정도로 여유가 있고, 인심 좋은 곳을 일컫는 의미로써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입니다. 여량리를 중심으로 6개의 법정리, 14개의 행정리, 6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간 고지대의 특성을 잘 살려 농업을 하고 있으며, 여량농협 냉동 찰옥수수 가공 공장 운영으로 옥수수 재배 농가에 대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장폭포

관광명소 및 축제

레일바이크, 아우라지, 아우라지 뗏목축제, 오장폭포, 이성대, 정선벅스랜드 스카이박스

여량 아우라지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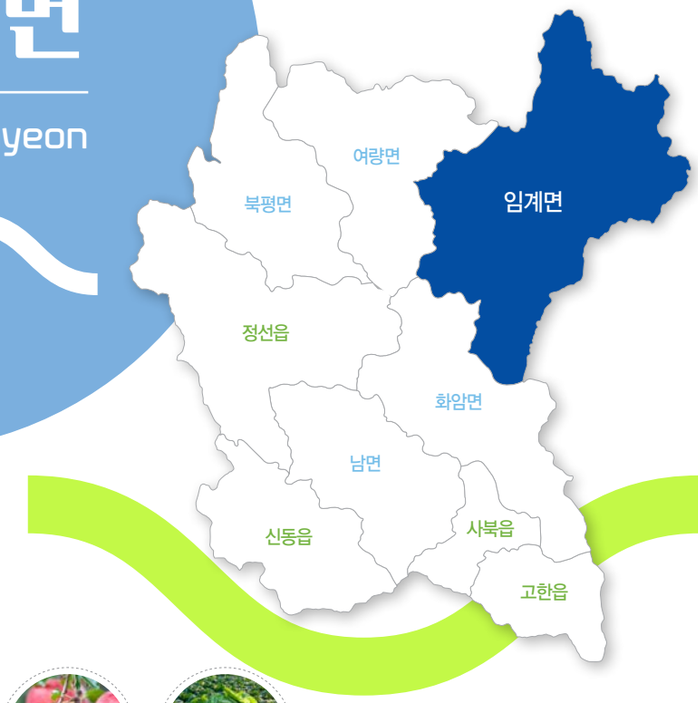
여량면보건지소,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 아우라지작은도서관

레일바이크

정선군의 4개 읍, 5개 면의
특색 및 관련 정보

임계면

Imgye-myeon



주 대표 농산물

마늘 감자 사과 배추

마을소개

임계면은 면적이 군 관내 9개 읍 · 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국도 35호선과 42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강릉, 동쪽으로는 동해시와 삼척시, 남쪽으로는 태백시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다른 지역 병원 및 관광명소, 문화생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군 농산물 생산량 26%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비옥한 농토에서 질 좋은 고랭지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로 이해 귀농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관광명소 및 축제

이종후 가옥, 장찬성(송계산성), 구미정(신기전, 추노, 선덕여왕 촬영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괘병산, 석병산, 고적대, 사과축제, 임계 오일장, 미락숲,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구미정
(신기전, 추노, 선덕여왕 촬영지)

문화생활

임계보건지소, 임계면지역아동센터, 임계면 오일장

임계 오일장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03

03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영농 교육

※ 2021년 기준

0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0과정·6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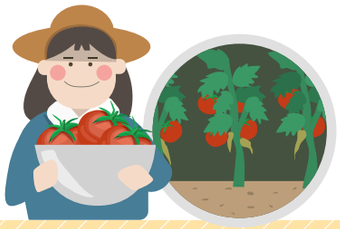
월	일	과정명	시간	인원
1	4	사과 재배기술	13:30~17:30	70
	5	고추 재배기술	13:30~17:30	50
	6	농업기계 안전관리 교육 (임계, 여량, 북평, 남면-읍·면 거주자만 등록 가능)	13:30~17:30	70
	7	로컬푸드 활성화	13:30~17:30	40
	8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GAP, PLS 교육	13:30~16:00	50
	11	과수 재배기술	13:30~17:30	60
	12	농업 농촌 마케팅	13:30~17:30	30
	13	농업기계 안전관리 교육 (정선, 화암, 신동, 사북, 고한-읍·면 거주자만 등록 가능)	13:30~17:30	70
	14	한우 암소 개량기술	13:30~17:30	50
	15	자두 재배기술	13:30~17:30	40
	18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GAP, PLS 교육	13:30~17:30	50
	19	기능성 산채류	13:30~17:30	40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별도 교육 신청 없이 교육 당일 등록

02 온라인마케팅 교육

월	일	과정명	시간	인원
4	19	우리는 왜 SNS를 해야하는가? - 동기부여	13:30~17:30	20
	26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제작 (앱실습)		
5	3	인스타그램 / 유튜브 마케팅의 오해와 진실		
	10	인스타그램 / 스토리 및 하이라이트 구성하기		
	17	SNS스토리텔링 →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4	SNS마케팅 활용하기와 개인브랜딩 전략		
	31	블로그마케팅 ① - 개념, 준비, 블로그 개설		
6	7	블로그마케팅 ②		
	14	블로그마케팅 ③		
	21	블로그마케팅 ④		
	28	블로그마케팅 ⑤		
7	5	블로그마케팅 ⑥		
	12	블로그마케팅 ⑦		
	19	블로그마케팅 ⑧		
	26	블로그마케팅 ⑨		

※ 전화 신청 후 별도 신청서 작성(교육 시작 5일전 까지)



03 품목별전문 교육

2과정·220명

월	일	과정명	교육내용	시간	인원
1	25	친환경 농업반	친환경 작물선택 요령	13:30~17:30	40
2	1		유기농산물 재배생산 관리		
	8		친환경 농업 성공사례		
	15		해외 유기 인증제도		
1	26	양봉반	양봉의 이해	13:30~17:30	50
2	2		고품질 대량생산 관리		
	9		유기 양봉 관리		
	16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사육 방안 및 대책		
1	27	산채류반	강원도 산채의 종류와 현황	13:30~17:30	50
2	3		산채 재배기술(산마늘, 더덕)		
	17		산채 재배기술(곤드레, 곰취)		
1	29	고추 재배반	고추재배의 기초	13:30~17:30	30
2	5		친환경 고추 재배		
	16		고추 재배 성공사례 발표		
5	26	사과 기초반	사과재배 환경이해 / 과수용어 해설	13:30~17:30	50
6	2		과원종성 및 품종선택 / 사과원 토양관리		
	9		유목기 연차별 수형 관리 / 병해충 반제기술		
	16		전지전정 기초이론 / 과원 현장 실습 교육		
	23		사과 결실 관리 / 착색 관리		

※ 전화 신청 후 별도 신청서 작성(교육 시작 5일전 까지)

04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교육

월	일	과정명	교육내용	시간	인원
3	9	기본 교육	강소농 기본교육 및 강소농 추진 성공사례	13:00~18:00	20
3	18	심화 교육	강소농 심화 비전 및 목표 설정, 경영계획서 및 실행보고서 작성	13:00~18:00	
	19			09:00~15:00	
4	14	후속 교육	실천노트 점검 및 농업경영 계획서 작성	13:00~18:00	
	28		농가 크로스 코칭(1)	09:00~18:00	
5	12		실천노트 정검 및 크로스 코칭 결과 발표회	13:00~18:00	
	26		농가 크로스 코칭(2)	09:00~18:00	
6	9		브랜드 개발 및 활용 방법	13:00~18:00	
	23		농가 크로스 코칭(3)	09:00~18:00	
7	7		최종 평가회	13:00~18:00	

※ 전화 신청 후 별도 신청서 작성(교육 시작 5일전 까지)

05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사과전문학과)

월	일	교육내용	시간	인원
2	18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3:30~17:30	
4	8	사과 생리장해	13:30~17:30	
	15	결실관리(인공수분 및 약제적과 중심)	13:00~18:00	
	22	결실관리 현장 교육	13:30~17:30	
	29	사과 선도 농업인 사례발표1	13:30~17:30	
6	17	하계전정 및 장마기 과원 관리	13:30~17:30	
	24	하계전정 현장 교육	13:30~17:30	
7	1	수체관리(과실비대, 꽃분분화, 일소방지)	13:30~17:30	
	8	수체관리 현장 교육(관내)	13:30~17:30	
	15	착색 관련 및 수세 유지 기술	13:30~17:30	
	22	관원 선진지 견학	13:30~17:30	50
	23			
8	19	사과 선도 농업인 사례발표2	13:30~17:30	
	26	중생종 착색 관련 현장 교육	13:30~17:30	
9	2	수확 후 관리 기술	13:30~17:30	
	9	관원 토양관리기술 이론 및 현장 교육	13:30~17:30	
	30	사과 병해충 방제기술	13:30~17:30	
10	7	고품질 사과 생산 종합기술	13:30~17:30	
	14	후지과원 착색관련 현장 교육	13:30~17:30	
	21	정지전정 이론교육	13:30~17:30	
	28	자가묘목 생산기술(접목실습)	13:30~17:30	
11	4	농산물 마케팅 전략	13:30~17:30	
	18	졸업식 및 간담회	14:00~18:00	

※ 모집 기간 : 2020년 12월 21일 ~ 2021년 1월 31일 / 입학지원서 작성

06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 교육

월	일	과정명	시간	인원
4	13	개강식 및 마인드 교육	13:30~14:00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가공센터 견학	14:00~17:30	
	14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기본교육	13:30~17:30	
	20	토양의 이해	13:30~17:30	
	27	친환경농업의 이해	13:30~17:30	
5	4	효율적인 비료 사용, 올바른 농약 사용	13:30~17:30	
	11	식물영양 생리의 이해	13:30~17:30	
	18	유기농업의 이해	13:30~17:30	
	25	농업인이 알아야 할 벌률 상식	13:30~17:30	20
6	1	농업 유용 미생물의 이해	13:30~17:30	
	8	양봉의 이해	13:30~17:30	
	15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이해	13:30~17:30	
	22	관내 가공체험 프로그램 체험	13:30~17:30	
	29	농산물 마케팅	13:30~17:30	
7	6	성공적인 귀농·귀촌 창업 전략	13:30~17:30	
	15	귀농인 원예치료	13:30~17:00	
		수료식	17:00~17:30	

※ 모집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3월 9일 / 별도 신청서 작성

교육 안내

☑ **신청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귀농 예정자

☑ **신청방법** 전화신청 : ☎ 033)560-2851
방문신청 : 정선군농업기술센터 2층 사회지도팀

☑ **교육생 선전**

≫ 선착순(단,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추후 교육제한)
※ 일부 교육과정 선정기준 있음(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신청 후 교육대상자는 교육 1주일 전 문자메시지 전송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연락

☑ **교육장소**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업 현장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남평초등학교 앞)

※ 상기 모든 교육과정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소장		033)560-2551	
농업축산과장		033)560-2410	
농정기획팀	033)560-2371	농산지원팀	033)560-2374
농촌개발팀	033)560-2373	축산경영팀	033)560-2392
농업마케팅팀	033)560-2378	가축방영팀	033)560-2531

기술지원과장		033)560-2553	
지도기획팀	033)560-2706	사회지도팀	033)560-2716
농업기계팀	033)560-2554	농업기계임계분소	033)560-2696
원예특작팀	033)560-2449	농업기계신동분소	033)560-2850

기술연구과장		033)560-2559	
작물지도팀	033)560-2375	연구개발팀	033)560-2695
과수연구팀	033)560-2966	병리환경팀	033)560-2989

정선군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생활·복지

출처 : 정선군청 홈페이지

04

정선군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생활·복지

주거·직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농촌주택개량 사업지원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 - 신축 2억원(증축 등 1억원) - 고정금리 2% (변동금리가능) - 1(3)년 거치, 19(17)년 상환	≫ 농촌지역에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희망자(융자대출 신청 전 전입)	도시과 033-560-2490
지방세 (취득세)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280만원까지 경감)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 (2021.12.31. 까지)	세무과 033-560-2532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노후주택 신·개축)	≫ 융자금 : 최대 5천만원 - 연이율 1% - 5년 거치 15년 균등 분할	≫ **1순위** : 노후주택 신·개축 - 폐광지역진흥지구 거주자 -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및 불량주택 철거 후 신·개축 희망자 ≫ **2순위** : 타 시·도 2년 이상 거주 후 폐광지역지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 신축 희망자	전략산업과 033-560-2356
근로자기숙사 (임대아파트) 제공	≫ 근로자 기숙사 제공 또는 근로자 임대 아파트 유상 임대	≫ 관내 기업체 근로자	전략산업과 033-560-2352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폐광지역투자 기업지원	≫ 부지매입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본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비율 및 한도 있음)	≫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증설 기업으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전략산업과 033-560-2352
정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구인·구직 상담 및 연계 ≫ 직업교육훈련 ≫ 새일여성인턴제 등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	여성청소년과 033-560-2319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 관내 군민	경제과 033-560-2439
소상공인 시설 개선지원	≫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개량, 영업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 등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2,000만원 이내 지원	≫ 정선군에서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경제과 033-560-2358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 사업(기업)체당 최대 10명, 100만원/1인 기준, 6개월간 지원	≫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정선군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경제과 033-560-2150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 기업 : 5년간 900만원 적립 (월 15만원×60개월) ≫ 근로자 :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60개월) ≫ 강원도 및 정선군 : 5년간 1,200만원 (월 20만원×60개월)	≫ 참여자 : 지원 기간 동안 소속 기업 재직 가능,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 ≫ 참여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소상공인 포함)	경제과 033-560-2150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지원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월 임금 22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경제과 033-560-250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 월 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월 보험료의 40%~70%(등급별 차등) ≫ 산재보험 : 월 보험료의 50%	≫ 관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등	경제과 033-560-2501
농어업인수당 지원	≫ 가구당 70만원 (1회 일괄 지급) - 강원상품권 + 정선아리랑상품권	≫ 농어업경영체 가구 -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계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농업기술센터 033-560-2371

전입·결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1대 (5만원 이하)	≫ 소방시설 미설치 전입 세대 (아파트 제외)	안전과 033-560-2131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500만원/1회에 한함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초혼 남성	여성청소년과 033-560-2977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근로자 기숙사 제공 또는 근로자 임대 아파트 유상 임대	≫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가구	보건소 033-560-2060

임신·출산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 첫·둘째아 : 12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 120만원/12년 ★ 월 10만원 지급	≫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 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 포함)	여성청소년과 033-560-2977
아동수당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 만 0세~만 7세 미만 아동 (83개월까지 지급)	여성청소년과 033-560-2815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40만원	≫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가구	여성청소년과 033-560-2815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가정 양육수당지원	≫ 0~11개월 까지 : 20만원 ≫ 12~23일 까지 : 15만원 ≫ 24~84개월 까지 : 1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여성청소년과 033-560-2968
정선군 출산용품 지원	≫ 정선아리랑상품권 지원 - 첫째아 : 10만원 상당 - 둘째아 : 20만원 상당 - 셋째아 이상 : 30만원 상당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정선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의 자녀	보건소 033-560-206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산모 영양 관리 등)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 가정	보건소 033-560-206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소 033-560-2060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진단 검사 비용 지원 ★부부당 최대 15만원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	보건소 033-560-2060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2주 1회, 이동검진 차량 이용 산전 관리 (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보건소 033-560-2060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아 : 최대 15만원 - 둘째아 : 최대 20만원 - 셋째아 이상 : 최대 30만원	≫ 2017.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 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보건소 033-560-2060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엽산제, 철분제, 모자보건 수첩 등 ≫ 영유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교육 등	≫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보건소 033-560-206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일부 본인 부담금)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25만원 내)	≫ 2021년도 출생한 신생아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보건소 033-560-2060
다자녀 수도 요금 지원	≫ 수도 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 이상 : 10㎥ 경감 - 월 사용량 10㎥ 미만 :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세자녀 이상 가구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527

보육·돌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마루공동육아나눔터(정선) ≫ 흑빛공동육아나눔터(고한)	≫ 마루공동육아나눔터 : 초1학년 ~ 6학년 자녀 및 양육자 ≫ 흑빛공동육아나눔터 : 만 18세 미만 자녀 및 양육자	여성청소년과 033-560-2977
키즈카페 운영	≫ 아리랑키즈카페 (정선군여성회관 2층) ≫ 아리키즈카페 (사북청소년장학센터 1층)	≫ 만 7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사용료 : 1인 4,000원 (2시간) - 보호자 1인 무료	여성청소년과 033-560-281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가온누리돌봄센터(신동) ≫ 고한다함께돌봄센터(고한)	≫ 만 6세~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여성청소년과 033-560-2943
지역아동센터 운영	≫ 푸른나무(정선) ≫ 흑빛(고한) ≫ 아우라지(여량) ≫ 임계(임계) ≫ 별빛달빛(남면) ≫ 그림바위(화암) ≫ 북평(북평)	≫ 관내 취약계층 및 일반 아동	여성청소년과 033-560-2973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여성청소년과 033-560-2759

아동·청소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국가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등 백신 17종	≫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8.1.1. 이후 출생자)	보건소 033-560-211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식비용 : 학부모 부담 전액) ≫ 친환경(우수) 식자재 구입 지원	≫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농업기술센터 033-560-2983
우유 무상급식 추진	≫ 백색우유 또는 강화 우유 (국내산 원유 100%) ★205일 이내(주5회/월21일 기준)	≫ 사립 및 국·공립 병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농업기술센터 033-560-298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정선, 화암, 북평)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고한, 사북, 남면) - 신동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신동) - 임계청소년문화의집(임계, 여량)	≫ 초등 4학년~ 중등 3학년	여성청소년과 033-560-2317
정선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관내 청소년 및 부모	여성청소년과 033-560-2317
정선 인재 육성 아카데미 운영	≫ 심화학 (국, 영, 수, 사탐, 과탐) 및 논술 운영 등 - 정선군청소년수련관	≫ 관내 고등학교 1~3 학년	여성청소년과 033-560-2972
지방세(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승차 정원에 따라, 감면 기준 다름)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의 목적으로 2021.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세무과 033-560-2291

청년·장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정선 장학회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 연간 1인당 1백만원 ≫ 대학생 : 연간 1인당 3백만원	≫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신청자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후 지급	여성청소년과 033-560-2015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 1인당 100만원 (1회에 한함)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대학 신입생 중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 - 정규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여성청소년과 033-560-2977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신입생 : 1인당 4백만원 (1학기한) 한도 ≫ 재학생 : 1인당 3백만원 (학기당) 한도	≫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 ≫ 저소득·차상위계층 ≫ 학사 관련 사항을 충족 하는 자	전략사업과 033-560-2356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공공기관 근무 기회 제공 및 인건비 지급	≫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경제과 033-560-2972
2021년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 국어, 영어(문법, 독해), 한국사 오프라인 강의 ≫ 공무원 단기 온라인 수강권	≫ 관내 거주 공무원 시험 준비생	여성청소년과 033-560-2972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	≫ 3년 유지 시 근로 소득 장려금 지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 (만 15세~39세)	복지과 033-560-2964
청년저축계좌 지원	≫ 3년 유지 시 근로 소득 장려금 (1:3 매칭) 지원	≫ 일하는 차상위청년 (만 15세~39세)	복지과 033-560-2964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임업후계자 선발·육성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우선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우선 지원	≫ 55세 미만의 자(개인독림가의 자녀 또는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 또는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 ≫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지원	산림과 033-560-2953
청년 후계농 선발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 - 독립경영 1년차 : 월 100만원 - 독립경영 2년차 : 월 90만원 - 독립경영 3년차 : 월 80만원 지원	≫ 청년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 - 만 18세~만 40세 미만 -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농업기술센터 033-560-2709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 대출(농신보신용보증) - 최대 3억원 한도 - 연리 2%(고정금리)	≫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 - 만 18세~만 50세 미만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기술센터 033-560-2709
영농 4-H 경영개선 지원	≫ 영농경영개선에 필요한 장비구입 지원	≫ 영농 4-H 회원으로 가입 후 2년 이상 된활동 우수 회원	농업기술센터 033-560-2709
청년 활동 거점 공간 조성	≫ 청년 소통 및 창업 공간 조성 - 사북핫스팟(파랑새길 36) - 남면핫스팟(도원2길 27) - 고한핫스팟(조성중) - 임계핫스팟(조성중)	≫ 관내 청년 (만 18세 ~ 만 45세)	총무행정관 033-560-2253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해 - 사망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지급 - 입원비(상해 및 질병) : 15,000원(일당/180일 한도)	≫ 관내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 -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해상 의경, 의무 소방 ★자동가입	안전과 033-560-2264

노년·기타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지원	≫ 약국 조제비 10,000원 이하 : 본인 부담금 1,000원 지원 ≫ 약국 조제비 10,000원 이상 : 본인 부담금 1,200원 지원	≫ 관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보건소 처방전에 의하여 정선읍 소재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보건소 033-560-2867
어르신 예방 접종비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매년) ≫ 폐렴구균 예방접종(1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033-560-2116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 뇌혈관질환자 무료 상담 및 교육 ≫ 고혈압, 당뇨 합병증 무료검사 등	≫ 관내 군민 - 보건소 내소자 -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등	보건소 033-560-2854
치매 환자 등록·관리 지원	≫ 치료비 지원 : 월 3만원 이내 ≫ 조호물품 지원 : 월 2만원 이내 ≫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 : 치매전문의료기관 검진비 11만원 이내	≫ 만 60세 이상 또는 치매 진단받은 자 - 치료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조호 물품 : 치매 환자 등록 가구 - 검사비 : 검사 후 치매 증상이 의심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033-560-2565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 연간 12만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실버에티켓) ≫ 분기별 3만원 이용권	≫ 만 75세 이상 군민	복지과 033-560-2975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 안전·안부 확인 (방문, 전화 등) 생활 안전 점검, 정보제공, 말벗 ≫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	≫ 만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독거·조손·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복지과 033-560-2173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성인문해교실 운영	≫ 기초문해교육 및 생활문해교육 (금융·교통·정보화 등) ≫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 관내 비문해성인 및 저학력 학습자	여성청소년과 033-560-2186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	≫ 보장내용 :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보장금액 : 1인당 최대 3천만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안전과 033-560-213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별도 신청 없음)	복지과 033-560-2144
작은 영화관 운영	≫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봉양6길 10) ≫ 고한 작은 영화관 (고한10길 28-12)	≫ 2D상영관 : 6,000원 ≫ 3D상영관 : 8,000원 ♣ 우대할인(5,000원/2D) : 군인(병사), 학생,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문화관광과 033-560-2549

귀농·귀촌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대출(농신보신용보증) - 농업창업자금 : 3억원 한도, 2%,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자금 : 7천5백만원 한도,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만 65세 이하 농업인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농업기술센터 033-560-2856
귀농인 정착지원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 수리)	≫ 영농기반조성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농가주택 수리비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 관내 귀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산림과 033-560-2169
지방세 (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 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세무과 033-560-2532

농가주택(시골집) 구입 시

장점·단점· 주의할 점 및 농지원부

05

농가주택(시골집) 구입 시

장점 ADVANTAGE

0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히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집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으므로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0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시골집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형 평수가 많아 투자금액이 적습니다. 농지에 농막(컨테이너)을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04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골집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 있고, 분위기 있습니다.
시골집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 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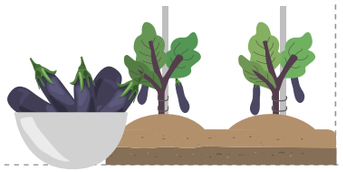
05 시골집에 딸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해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 형식으로 꾸미면 좋습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별채로 사용 가능합니다.

06 살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시골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 주택 신축 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농 선배들이 1년 정도 현지에 살아보고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동화된 후에 주택 신축하라는 충고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중교통망이 있습니다.

07 대부분 시골집은 마당이 있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시골집) 구입 시

단점 BAD POINT

01 건축 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시골집은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 정도입니다.
구조도 입식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02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시골집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부터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법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골집은 몇년이 넘은 것이 많으므로 현행법과 무관한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가주택(시골집) 구입 시

주의할 점 A POINT OF CAUTION

시골집을 구입 할 때 집이 있다 하여 덜컥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 마시고 전문가(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와 상의하시고 매입 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01 농어촌에 있는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시골집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명의변경을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 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시골집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 토지소유주 모두 동일인으로 만들고 계약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가옥대장과 현 소유주가 다른 경우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청에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허가 주택인 경우, 구입 한 주택을 그냥 대충 보수하고 사시는 분 중에는 별 신경 안 쓰고 군청에 문의나 신고도 안 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02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등기상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낡고 폐가와 같은 집이라도 나중에 매도자와 다른 실제 건물주인이 나타나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지만 건물소유주가 매도자와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03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기분 좋게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시에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되는 일도 있습니다.
쓸만한 집이 주면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입니다.

그러나, 집 상태가 좋고 1년 도지세(토지 사용료)가 싸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현재 소유주도 팔기 힘든 것처럼 나중에 팔려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생 살 생각이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통 건축비 시세 이하이므로 생각해 볼만한 점입니다.

04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상태의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남다른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05 빈집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가주택(시골집) 구입 시

고려할 사항 CONSIDERATIONS

STEP 01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집값이 주변 대지 가격 대비 조금만 산정된 경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시골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에 속해 있는 집값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02 사정으로 빈집이 된 지 얼마 안 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STEP 03 빈집이 된 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서까래와 기둥이 쓸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

STEP 04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서까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STEP 0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주변 환경은 배제하고 비용만으로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리적인 환경 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맘에 꼭 드는 땅이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비용과 지리적인 환경 부분이 둘 다 맘에 든다면 대부분 이런 집은 극소수이고 매입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마을이 들어설 때는 지리적인 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농사짓기 편리한 위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나 물줄기 도로 등 주변 환경이 가치판단의 많은 위치를 차지합니다.주택에 대한 지리적 환경 판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마을에 인접한 시골집은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農地原簿

farmland ledger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농업인이 신청하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 실태 파악과 농지의 경작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현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귀농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 후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긴다면 이는 농지원부 발급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농지에서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온실 등과 같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

≫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
★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음

농지원부 신청 방법

≫ 시·군·읍·면 사무소를 방문 하셔서 직접 신청

≫ 온라인 민원24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경작 확인서

≫ 농지 임대해서 농사짓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 확인서
(마을 이장의 확인)

농지원부 혜택

① 농지원부 신청 등록 2년 경과 후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② 8년 이상 재촌 자격 입증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
★ 단, 연간 3,700만원 이상 다른 소득 있을 시 당해연도는 자격 기간에서 제외
(본인 소득만 계산되고 배우자 소득과는 무관)

③ 국민연금 월 최대 38,250원 보조금 지원

④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농어촌거주 22%, 농어업인증명 28%)

⑤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농지 전용하여 농가 주택, 창고, 농업용 시설 설치 시

⑥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 전형 입학, 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⑦ 농자재 부가세환급 및 일정량의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세 혜택

⑧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인 자 농지 연금 가입 가능

⑨ 논·밭 직불금 지원 및 농기계 임대

⑩ 3년 이상 재촌 자격 후 농지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시 양도세 감면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 사례 수기 공모전

06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01 공모전 추진한 개요

- 전문가들의 귀농·귀촌 참고서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작성한 수기 공모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직접 몸으로 체득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기회 마련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의 기회를 마련
- 정선에 귀농·귀촌한 성공사례를 공모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 및 정선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

02 공모전 추진한 목적

- 안정적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다.
- 준비하고 있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자신감을 주고 주거 문제, 영농기술,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귀농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팁과 자신만의 판매전략 등을 공유하여 귀농 희망자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귀농인이 양성되고, 귀촌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03 기대효과

- 정선군 관내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과 귀농·귀촌한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차후 정선군 관내로 귀농·귀촌 상담이 들어올 시 수상자 및 참여한 분들과 협력하여 맞춤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을 하였을 시 멘토-멘티로연결하여 기본 영농기술 및 농업적·기술적 정보제공 또한 가능하다.
- 성공사례 수상작 및 참여 공모작을 정선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착상

2015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로
귀촌한 박현준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2006년 직장 문제로 인천에서 원주로 이사한 후, 2015년 원주에서 정선읍 회동리로 귀촌한 박현준입니다. 귀농하기 전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정보통신 관련 사업가였으며, 현재는 산양삼 농사를 지으며 고령층에게 한글과 디지털 기기 교육을 가르치는 문해교사이자 디지털 교육용 기계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 대표입니다.

중간

프롤로그

아마 그때도 2021년 겨울처럼 매서운 겨울 한파가 불어오고 있을 때로 기억한다. 마을로 들어서는 야산은 공동묘지인지 작은 묘 몇 기와 하늘 높이 소나무들이 빽빽이 솟아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로 괴물처럼 붉은 전구를 깜박이는 전기 철탑이 있었으며, 왕복 2차선의 작은 길이 꼬불꼬불 나 있었다. 며칠 전 눈이 내린 것 같은 아스팔트 위로는 염화칼슘인지 아직 녹지 않은 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하얀 가루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고갯길을 내려가면 긴 다리 하나가 이방인에게 길을 안내하듯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그 다리를 건너면 이파리 하나 없는 포도나무 줄기가 처마 밑을 감싸고 있는 시골 가게가 있었고 보건소, 초등학교가 있음을 알리는 간판이 차례로 있었다. 보건소 앞을 지날 때쯤 되면 저 멀리에 삶에 바빠 미처 염색하지 못한 중년의 머리처럼 하얀 눈이 듬성듬성 덮인 산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산은 나를 안으려는 중년 시절 어머니의 품 같기도 했었고, 좌우의 산봉우리는 나를 감싸주려는 중년 아버지의 넓은 어깨처럼 보였다. 그리고 차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산은 나를 더욱 품에 안았다. 그렇게 난 그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고, 결국 가리왕산 밑에 있는 정선읍 회동리에 터를 잡았다. 아마 그때가 2015년 겨울이었으리라.

나는 그렇게 2015년 처음 정선읍 회동리에 들어섰다. 2012년부터 나는 가족이 있는 싱가포르와 직장이 있는 한국을 오가는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었다. 2015년 가족이 모두 귀국하게 되면 귀농이나 귀촌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어차피 아이들은 학업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이고, 나 먼저 귀농을 한 후 집사람이 정년을 맞이하면 농촌에서 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귀농 교육을 최대한 찾아다니며 받았고, 주위의 조언을 들으며 귀농을 준비했다. 그러던 차에 정선에 거주하는 후배의 권유와 조언에 따라 정선에서 그들과 함께 산양삼 농사를 짓기로 했다.

초기에 나는 직접적인 농사보다는 판로 개척, 부가 상품 개발,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등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의 연장선의 업무 분담으로 후배, 지인들과 같이하기로 하였었다. 작물은 산양삼, 두릅 등 임산물을 주로 하였고, 부가 상품 개발 및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라는 명확한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귀농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농업을 사업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정선에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내가 터를 잡게 된 회동

집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몇 달 머물고 떠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품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니며, 더욱이 집의 가격은 우리가 평생 사는 것 중 가장 비싸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골 지역은 집을 선택하기가 대도시보다 더 어려운 듯했다.

읍내에 나가면 도시처럼 원룸과 아파트들도 있지만, 귀농 · 귀촌을 결심한 처지에 도시에도 수두룩한 닭장과도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적어도 식구들과 함께 야외에 둘러앉아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마당이라도 있어야 했다. 시내에 멀리 떨어진 동네에는 몇억을 호가할 전원주택도 있었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낡은 농가 주택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많은 집 중에서 내가 살 집을 고르는 것은 어려웠다. 물론 매물도 많지 않았다. 집을 구하는 것은 귀농 · 귀촌 생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았다. 여러 고민 끝에 나는 시간을 벌기로 했다. 귀농 교육 때 강사들이 권유했듯이 임대를 얻어 살아보면서 동네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나 땅이 나오면 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2015년 당시에 용탄에 집을 임대해 놓고, 장기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성마령에서 산양삼 재배

선배가 있어 그 집을 몇 개월 같이 쓰기로 했다. 그러면서 용탄 성마령에서 산양삼 농사를 지으며 용탄과 회동 지역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올 즈음에 회동리에 70평의 대지와 17평 건평인 작은 집을 매매한다는 소식을 지인에게서 들었다. 아직 혼자이기에 큰 집이 필요 없었고, 농사를 짓는 성마령과 거리가 멀지 않아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아 보였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20~30평 남짓 텃밭이 있었고, 집 내부가 도시의 원룸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느 시골 농가와 다르게 토지와 건물이 모두 등기된 것도 장점이었다. 매매 가격은 5천만 원 다른 주택에 비해 비교적 싼 가격이었다. 그런데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원주의 집을 팔고 오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돈이 부족했다.

이미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진 돈의 반 정도를 농사에 투자한 상태였기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집도 기본적인 시설 일부를 수리해야 해서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더 필요했다.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군청과 읍사무소에 들려 상담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선군에서는 귀농인을 위한 농가 주택 수리비 5백만 원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와 귀농 주택 구매나 농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기에 나는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두 지원 정책의 전제 조건은 당연하게도 정선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농업 자금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야 했고, 집은 신청자 소유이어야 했다. 다행히 나는 선배의 집에 기거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였고, 산양삼 농사를 지으면서 후배의 땅 일부를 밭, 농사용으로 임대하여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상태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금 대출을 먼저 받아 집을 구매하고, 집수리 지원금을 받아 집을 수리하는 것이 순서였다. 농업 자금을 받기 위해 군청에 들러 면담을 거치고,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 정선군 명의로 대출 추천서가 나왔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2% 고정 금리였다. 대출 신청 금액은 3천만 원이었다. 이 돈은 집 구매 잔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매우 좋은 조건의 대출이었다.

대출을 실행하는 동안 농협 직원, 군청 직원, 농협 신보 직원 등과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짜증도 났지만, 다행히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구매하는 집 일부를 담보물로 설정하고, 부족분은 농업신용 보증에서 추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대출이 되었고 정선에 드디어 내 집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날이 2016년 4월 28일이었다.

이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하는 일만 남았다.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던 집이라 보일러 교체, 보일러실 공사 등 기본적인 난방 작업이 필요했다. 이번에도 공사 계획서를 군청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 업체를 통해 관련 서류를 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니 실사를 마친 후 500만 원의 수리비가 지급되었다. 화장실 변기 교체, 장판, 벽지 교체 등의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는 했지만, 이 비용은 자부담으로 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단순 인테리어라 지원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고, 기원 가능 금액도 500만 원이 상한이었다.

이후 나는 아궁이가 있던 앞뜰에 잔디를 심고 텃밭이 있던 옆 뜰에는 작은 돌을 깔아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2016년 여름이 오기 전에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에 나의 아담한 보금자리가 완성되었다.

집을 마련하기 전인 2015년부터 나와 동료들은 농사를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결성을 준비했었다. 영농조합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5명의 농업인이 사업에 동참하였다.

2015년 8월 우리는 산양삼과 임산물을 재배하고,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판매하는 영농조합을 설립하였다. 나의 오랜 IT업계 종사 경력을 살려 홈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운영까지 자체적으로 하였다. 또한, 산양삼 식혜, 산양삼 떡 등 가공품을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개발했으며, 당시 유명했던 정선 출신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진행하던 "이동진의 빨간책방"이라는 팟캐스트에 상품 협찬을 진행하여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농사를 짓는 틈틈이 정선군청을 통해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에 열리는 양봉 교육, 농업기계 교육, 굴삭기 교육, 임산물 교육 등도 수료하면서 나의 농업, 임업 지식을 넓혀나갔다.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도 수료하여 후에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영농조합 사업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비록 영농조합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뜻하지 않은 반가운 일도 생겼다.

양봉 교육을 하는 춘천 교육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40년 만에 만난 것이다. 고향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가 사북으로 귀촌하여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를 양봉 교육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정선이 나에게 옛 인연을 이어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고마운 것은 40년 만에 만난 친구 덕분에 정선장학회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귀농 이후 수입이 줄어 대학을 다니는 두 아이의 등록금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이후 아이들이 매년 장학생에 선발되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귀농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정선에서 정선군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정선에 이주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귀농 자금, 주택 수리비, 정선 장학금)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지역 주민들의 농기계를 고쳐주는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나의 작은 노력이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자원봉사를 신청하기도 했고, 마을 회의나 모임에는 최대한 자주 참석하려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사회 활동을 모색하던 중 정선군청 소식지 "아리리사람들"의 명예 기자 모집에 신청하여 나는 "아라리사람들" 명예 기자가 되었다. 그때가 2018년이었다. 어찌 보면 나를 처음 물리적으로 받아 준 곳은 정선읍 회동리였지만, 나를 처음 정선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은 정선군 소식지 "아라리사람들"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전문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나의 귀농 · 귀촌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나의 "아라리사람들" 기자 생활은 벌써 3년이 넘어간다. 나는 나의 생활과 생각을 가감 없이 글로 기고하였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나의 일상을 기고했고, 요즘은 정선군 정책에 대한 기고를 주로 하고 있다. 글 쓰는 솜씨가 좋지 않아 두 달에 한 번 오는 마감 날은 아직도 힘들다. 하지만 "아라리사람들"에 내 글이 실린 것을 보면 나도 정선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같아 행복하다.

정선에 살면서 나는 마을 어른들이나 주민들과 자주 교류를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도시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습관에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 어른들이 항상 내게 먼저 다가오신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이 어떨 때는 불편하지만 깊은 산골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난 그들과 교류를 해야만 했다. 여름엔 옥수수와 감자를, 가을엔 참기름과 들기름을 나에게 주시고, 어떨 때는 소수나 칼국수를 먹으러 오라고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그들의 초대가 조금은 불편하다. 나도 가끔은 농장에서 가져온 산양삼을 명절이나 복날에 어른들에게 나눠드리기는 하지만 말이다.

비록 아직도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마을 어른들과 관계는 나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리고 문해교사, 평생교육사, 사업가라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 냈다. 내 집 주위의 어른들도 다른 마을처럼 연세가 많다. 그리고 모두 혼자 사는 독고 노인들이다.

물론 아직은 정정하셔서 거동도 잘하시고, 농사도 별 무리 없이 짓는다. 그들은 그들 자식이 걱정하는 것에 비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잘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잘살고 있어도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된 세상의 이기들이 우리의 삶에 서서히 침투한다는 것이다. 가끔 우리 뒷집 할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와 핸드폰이 고장 난 거 같다며 어찌할까를 묻는다. 하지만 대부분 작동 방법을 몰랐던 것이지 고장 난 것이 아니었다. 또 옆집 할머니는 TV가 고장 나서 나오지 않는다고 나에게 하소연한다. 하지만 막상 내가 확인해 보면 TV는 정상이고 리모컨을 잘못 눌러 TV가 나오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30년 동안 나의 밥벌이였던 정보통신기기나 전자기기들의 작동이 어른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더 많은 기계를 팔기 위해 매일 최첨단 기계를 만들고, 도시에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최첨단 기계를 먼저 써보려고 자신의 주머니를 비우는 동안 고령의 어른들은 아주 단순한 전자기기나 디지털 기기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선읍 회동리 어른들만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대다수 고령층의 문제라는 것 나는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보일러 온도 조절기 사용법, 세탁기 사용법, 핸드폰 사용하는 법 등의 기초적인 것부터 은행 ATM 기기나 민원서류발급기 등의 자동화기기 사용법을 가르칠 방안을 고민하였다.

다행히도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문해교실"에서 어른들에게 한글을 비롯해 이러한 생활 속에 불편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년 1월 이런 것을 가르치는 문해교사 양성과정을 무료로 양성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문해교사 양성과정을 신청하여 2019년 1월 말 정선군 문해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교육 방법을 공부하며, "디지털 자동화기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문해교육을 하는 여러 사람에게서 극찬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직접 개발한 디지털 자동화기기 체험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문해교사 생활은 2019년 가을학기 방송대학교 교육학과에 나를 입학하게 하였고, 2021년 봄 평생교육사의 자격증도 받게 해주었다. 지역 어른들이 나를 깨우쳤고, 정선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졌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그것은 바로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여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우리 세상을 집어삼켰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기도 두려워했고, 밖에 나가기를 주저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여야만 했다. 도시에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사람과 대면하지 않으면서 핸드폰으로 음식을 시키고, 기차표나 버스 예매도 핸드폰으로 하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 ATM을 이용하여 돈을 찾았다.

하지만 우리 뒷집 할아버지와 옆집 할머니를 비롯한 대다수 고령층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급속히 비대면 사회로 바뀌어 가고, 여기저기 자동화 무인 기계가 설치되고, 공공기관에 들어가려면 큐알 코드라는 것을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고령의 어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이러한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국가적으로도 대두되었다. 지역 노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기가 코로나19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다.

나는 그동안 준비했던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서를 2020년 7월 창업진흥원에 제출했고, 창업의 조건으로 4천만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는 나의 프로그램과 기기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해 특허 출원을 지원해주었으며, 강원도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우수상과 상품을 나에게 수여하였다.

나의 아이디어에 초기부터 음으로 양으로 함께했던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와 문해협회 정선지부에서는 나의 프로그램과 기기를 이용하여 전국 처음으로 디지털 기초 문해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울산, 경기도, 원주, 횡성, 영월 등 많은 지자체에서 나의 프로그램과 기기 구매를 문의해 오고 있다. 나의 작은 재능 기부가 공적으로 인정받고 사업으로 승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들에 힘입어 프로그램 성능 향상과 더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영농조합의 산양삼 사업 부진으로 정체에 빠졌던 나의 정선 귀농 생활은 그동안의 생활들이 밑 걸음 되어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정선 귀농 후 요즘 가장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마도 내 귀농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지역 어르신들께 디지털 문해교육

에필로그

귀농 초기부터 나는 내가 귀농을 하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다.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었다. 그래서 꾸준히 SNS 활동도 하고 "아라리사람들"에 기고를 했다. 하지만 그 작업은 꾸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항상 생업에 밀려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정선군청 홈페이지에서 본 귀농 · 귀촌 수기 공모는 내가 그동안 미뤘던 이일을 마무리 짓게 하였다. 비록 몇 장 안 되는 분량에 태산처럼 많은 얘기를 담아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과정을 글로 남길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나의 귀농 · 귀촌 생활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15년 정선에 첫발을 디딘 후 귀농 6년 차인 지금, 나는 정선 생활이 행복하다. 그렇다면 이 귀농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2021년, 또 다른 모습의 귀농 · 귀촌 생활이 나에게 시작되고 있다.

마지막

귀농인에게 전하는 말

나는 귀농 · 귀촌을 준비하는 동안 200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귀촌 생활 6년 차인 지금 그때 배운 교육들이 나의 귀촌 생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귀촌할 때 큰 집을 짓기보다는 초기에 임대해서 살거나 작은 집을 마련해서 살아보라는 어느 귀농 선배의 조언, 고사리와 명이나물이 임산물 소득 순위 상위를 차지한다는 임산물 전문가의 지적, 지역 주민들과 관계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늘 따져보라는 지역 활동가의 권고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화합상

2012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로
귀농한 이예령님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 경기도 수원에서 정선군 임계면으로 귀농한 이예령입니다.

귀농하기 전 직업은 요식업이며, 현재는 농업인입니다. 귀농 이전의 터전이나 직업과는 전혀 다른 농업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며 느끼고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들려 드리려 합니다.

귀농을 결심하게 된 동기

음식점을 하다 보면 영업이 잘되든 안 되든 과도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각양각색의 손님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돈을 벌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영업할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지방을 답사하던 중 농촌을 접하면서 딱히 귀농 · 귀촌이라는 개념보다는 "시골 자연환경에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농사짓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직은 경제활동을 더해야 할 나이이기에 남편과 진지하게 의논한 후 귀농을 하기로 하였다.

어디로 갈까?

귀농하기로 하였으나 오라는 곳도 업고 갈 곳도 없었다. 남편은 강원도 양구 출신으로 고향에 농지 3천여 평이 있었으나 귀향을 하지 않으려 해서 휴일마다 정착지를 찾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만난 농업인들은 "힘든 농사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불편한 농촌에 뭐하러 오느냐"며 귀농을 한사코 말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귀농하겠다는 생각만 앞섰을 뿐 농촌의 현실은 어떤지. 농사는 무엇을 심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귀농할 장소를 물색하는데 정한 기준은 단 두 가지. 첫째, 서쪽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황사 영향이 덜한 곳일 것. 둘째, 농사를 지을 땅이므로 비싸면 안 될 것. 여러 후보지 중에서 동쪽에서 위치해 황사 걱정을 덜 수 있고, 농지가격이 낮아 초기 투자금 부담이 낮으며 풍광이 수려하고 고랭지 청정지역인 정선으로 결정하였다.

이곳이 신세계

임계면에 밭 3천 평을 구입하고 집을 짓기 전까지 거주할 곳이 필요해 5평형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를 중고로 구매하여 2013년 3월에 이사하였다.

성냥갑만 한 집에서 창으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쳐다보다 잠이 들고 새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을 맞이하며 소꿉놀이하듯 생활해도 동경하던 시골 생활이었기에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뭘 심어야지?

이사하기 전 근처에 5천 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8천 평에 봄부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작물 선택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동네에서 많이 심는 배추, 무, 양배추는 위험 요소가 크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나마 안전하다는 잡곡류로 백태, 서리태, 옥수수, 수수, 팥, 고추 등을 심어 초보 농사꾼이지만 열심히 농사지었고 수확도 괜찮았으나 수익금을 정산해본 결과는 참담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정도였기에 농사를 생전 처음 지어본 우리 부부는 당혹스럽고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고작이 걸 벌자고 그 고생을 했어? 농사가 원래 이런 거야? 이걸로 생활이 돼? 어렴풋이 짐작만 했던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 해야 했다.

수수, 고추, 콩 수확

그래 이거야!

정선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 소득작목으로 사과 재배를 권장하고 과수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보다 안정된 수익을 올리기 위해 2014년도에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큰 부담 없이 5천 평 밭에 2천 평은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까지 무려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과나무 특성상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농지에 잡곡과 풋고추를 심어 생활비와 영농비를 충당해야 했다.

구매했던 두 농지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경사진 밭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3천 평을 매도하고 2천 평의 과수원이 3년 차에 접어들어 다음 해에 수확이 나올 시점에 정선군에서 특화품종으로 지원하는 홍금 사과를 1,300평 증설하였으며 현재는 4천여 평에 사과나무 1,800여 주를 재배하고 있다.

사과나무

주경야독

농사는 모종이나 묘목을 심고 밭에 나가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특히 주 작목으로 선택한 사과 재배는 토양, 나무 특성, 병충해 등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없어 애를 태우던 중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아라리농업대학에서 2014년부터 3년간 사과 교육을 받았고 뒤이어 2017~2018년 2년 동안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사과 전공을 함과 동시에 2018년 아라리농업대학 식품발효반을 수료하여 향후에 사과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준비하였고 나름대로 사과 재배 기술을 정립할 수 있었다.

농사와 교육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종자와 묘목의 생리를 알기 위해 종자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식품 가공기능사 자격증을, 식물의 병리학, 배재학, 농림해충학, 농약학 및 잡초방제학을 알기 위해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남편과 함께 취득하였다.

사과나무의 생리를 이해하고 적기를 병 · 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니 농약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타 농가와 비교해 농약 비용이 10~20%밖에 지출되지 않아 영농비는 물론 인력도 절감되고 환경을 보호하게 되며 건강한 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듯이 나의 지식을 주변 농가에 전파해주고 덕분에 소득이 늘었다는 감사 인사에 보람을 느끼며, 2년째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 귀농인이 그렇듯이 우리 부부도 농약이 싫어 과수원을 3년 동안 무농약으로 재배해보기도 했으나 판매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현실과 타협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 농사지어야 할까?

사과 재배 농가들은 병과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방제력 즉 달력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농장주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안심이 안 될 경우 횟수를 더하기도 하지만 관찰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식물보호기사 지식을 더해 병이 없어지면 살균제를, 해충이 없으면 살충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GAP 인증과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을 받은 아라리농원에서는 일반 농가와 달리 안 하는 것이 여러가지 있다.

이름하여 9無 1有이다. 친환경 농법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거름과 비료를 주지 않고 물로만 키우고, 꽃과 열매를 제거하는 적화제, 적과제 대신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며, 자연적으로 커야 하는 열매를 억지로 키우는 비대제, 색깔이 빨리 예쁘고 붉게 들게 하는 착색제, 사과에 얼룩이 질까 봐 잎을 떨어뜨리는 적엽제, 사과 아래 부분까지 골고루 색깔이 들라고 바닥에 까는 반사필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풀을 베어 거름을 대체하여 땅을 살리고 당도를 높이는 9 無와 아라리농원의 브랜드로 상표 등록한 "진심 어린 사과"처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농사법이 1有이다.

크면서 때깔 좋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사과를 만들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겠지만 편리하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호르몬제 등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여 사과를 재배하기 때문에 다소 크기가 작고 예쁘지도 않지만 자연스러운 맛과 건강함을 담은 사과라고 감히 자부하며 생산되는 사과 전량을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해 찾아주시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힘은 농법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과수원을 가꾸고 있다.

홍금 사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멘토 활동

정착 과정은?

이사하여 컨테이너에 살면서 집터 옆에 창고 겸 모종을 키울 비닐하우스 50여 평을 부부가 천신만고 끝에 설치하였었는데 비닐 씌운 바로 다음 날 태풍급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들썩이다가 폭삭 주저앉았고 컨테이너 하우스 지붕도 날아가 버리는 첫 번째 시련을 맞았다.

천장으로 빗물이 새는 컨테이너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파이프가 엉켜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마을 주민 모두가 동원되어 컨테이너 지붕을 올려주고 비닐하우스를 정리하여 새로이 설치해준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 도움을 주었던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살려고 온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도움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귀농 전후로 귀동냥해 들은 정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 막역하게나마 불안해했던 것이 기우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의 고마움도 있지만, 주민들과 섞이기 위해 2년 동안 반장일을 보며 마을 행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폐지와 공병을 수집해 모은 돈으로 노인 어르신들 내의를 사드리고 어버이날 효도 행사를 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썼고, 명절에 어르신들께 선물과 세배드리는 일은 매년하고 있으며, 남편은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화합에 주력한 결과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

주거 문제는 겨울철에 물 공급이 어려워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중고 조립식판넬을 구입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12평짜리 집을 짓고 기거하면서 터 닦아 놓은 집터에 황토벽돌집을 짓기로 하였다.

농사지으며 집을 짓는다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비용도 줄이고 내가 살집은 내가 짓는다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남편과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롭고 그 당시 사진을 보게 되면 무식하고 용감했던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웃는다.

주택은 최소비용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창호와 가구, 잡자재 등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그것에 맞게 설계하였고,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작업함으로써 건축비를 대폭 아길 수는 있었지만, 착공 후 10개월 만에 입주하게 되었다.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던 컨테이너

터 닦아 놓은 집터

직접 작업하여 완공된 우리의 새 보금자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시골로 온 지 어언 9년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듯하다.

첫째, 귀농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었다. 귀농지와 작물 선택은 중요한 요소로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율을 낮추고,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깊이 고민하지 못하였다.

둘째, 영농기술을 습득했어야 했다.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많이 받았으나 실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셋째, 소득이 없는 걸 대비해 여유자금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여유자금 준비는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나는 지금 행복하고 힘든 농사일이 아직 까지는 재미있다. 직접 메주를 띄워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가 먹고 김치를 담그며, 고양이 강아지와 밭을 둘러보는 것도 즐겁고 고객들과 소통하며 큰 즐거움을 느낀다.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아직 성공했다고 할 순 없지만 앞으로 하고 싶고 계획하는 일이 많다.

명품사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며 첫 번째 농산물가공품인 사과즙을 더 널리 알리고, 두 번째 가공품 사과떡은 상품성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 밖에 추진하고 있는 사과 젤리 등 가공품을 제품화하며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건강도 챙기려 한다.

직접 수확한 사과로 사과잼&사과즙 가공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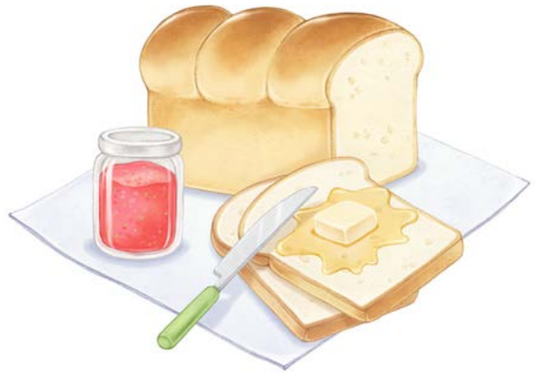
~한데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 아무나 농사짓는 게 아니더군요,

위에서 열거했던 3가지 이외에 농산물 판로도 없이 무작정 농사짓는 것과 유행을 따르는 작물 선택은 피해야 하며, 일정 비율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도 부채이므로 규모에 맞지 않는 농기계구입 등 무리한 시설 투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같겠지만 경험에 비춰보면 농촌은 이주민에 관한 관심이나 간섭, 소문으로 인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도시보다 많다고 생각되므로 소통과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귀농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와 여러 요소가 작용하는 삶의 질이 우선한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농촌에서 농업만으로의 경제활동은 어려운 면이 많기 있고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주 이전의 직업이나 전문성을 살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개척한다거나 가공품 개발, 농산물 유통, 교육, 복지, 문화 관련 등 여러 분야에 도시보다 오히려 일거리가 많을 수 있다고 보기에 준비만 잘한다면 성공적인 귀농 · 귀촌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정선군은 농업인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판매액 1위를 자랑하는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장 해썹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부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선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변에 저희의 보잘것없는 경험이라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더불어 잘 사는 정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상

2016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로 귀농한 원종석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리네 귀농 이야기

저는 2016년 9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정선 광하 2리로 귀농한 원종석입니다.

귀농 전 직업이 "헤이데이"란 상호로 문구, 팬시 사업을 1987년 7월 1일 시작해서 2016년 6월 30일로 정확하게 29년을 하였으며 현재는 귀농인으로 약 4년 5개월 정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선군으로 귀농하게 된 계기는 사업을 하던 중 직원을 광하2리 출신으로 지인 소개로 영입하게 되어서 1996년 우리 마을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였는데 너무 마을이 아늑하고 포근하고 왠지 마음이 끌렸다고나 할까? 후일에 만약 은퇴하면 정착도 고려해 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였고, 그다음 해 1997년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기 위해 신축한 집

농사짓기 위한 땅

집을 중심으로 좌우로 농사를 지을 밭을 나누었습니다. 좌측은 큰 밭(400평), 우측은 작은방(80평)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부가 너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도 해야 하고 집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방문하려고 생각하였지만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물론 텃밭은 마을주민을 지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29년을 교류하면서 마침내 은퇴를 결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고 겁도 나고 여러 가지로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보자" 결심을 하고 나니, 용기를 내어 귀농을 시작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마을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녁마다 체크하고 메모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얻으면서 그해(2016년) 겨울은 기본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 많이 하였습니다. 2017년 초에는 480평에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떤 종자로 파종해야 할지 막막해서 심을 종자를 7가지로 대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잎채소, 줄기, 뿌리, 열매, 곡물, 과수, 한약재 정도로 하니 종자가 142종이나 되었는데 종류당 씨앗을 1봉씩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142종 중에는 모종을 키워서 본 밭에 이식하는 경우와 바로 직파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파일

마치 도시 근교의 주말농장처럼 팻말에 파종일까지 기록하고 체크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7년 1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종자를 일정한 토지에다 심다 보니 일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도 견디어 냈습니다. 오로지 현장 경험을 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토질이 안 맞고 농약도 시기를 못 맞추고 해서 일부는 안되고 잘 자라는 종자도 꽤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메모하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종자 품목을 75종으로 줄이고, 2019년에는 종자 품목을 44종으로 최종적으로 선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그 나름대로 현장 경험을 얻게 됩니다.

2019년부터는 약간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2년의 값진 경험으로 품목을 주 품목, 부 품목으로 구분해서 주 품목을 고추로 정하고 부 품목으로는 약 40종을 정하게 됩니다.

주 품목 고추는 모종을 키워서 밭에 파종해서 수확을 하고, 건조기에 건조를 시켜서 고춧가루를 지인분들한테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의외로 깨끗한 물과 환경 속에서 고춧가루를 생산하다 보니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고춧가루 생산과정을 사진을 찍어 지인분한테 전송하고 대화를 하고,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구전으로 전달이 돼서 지금은 2년이 지났지만, 고춧가루로 년 600근(360kg)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부 품목은 옥수수, 쌈 채소, 과일, 뿌리식물로 확정을 해서 일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이 고춧가루를 판매해준 지인분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공급을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고, 신뢰를 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후반기에는 큰 밭 주변 귀퉁이에다 조그마한 양계장을 지어서 달걀도 생산하고 있고, 채소를 생산하다 보니 11월에는 저장고(냉장, 냉동)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 11월 기존 작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비닐하우스(50평)도 짓게 됩니다. 고추 건조장이 너무 좁아서 확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2019, 2020년도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종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팻말로 기록

저는 현장 경험을 하면서 귀농 · 귀촌을 다들 엄두를 못 내고 망설이고 어렵다고 생각들 하지만, 일단 기본 틀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지식은 얼마든지 예를 들면 인터넷,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마을 주민분들,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무수한 교육을 공유하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은 거창하지 않으면서 도시의 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가능성을 비록 짧은 2년이지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과 고민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이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본인만이 갈등을 타파하고 고민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만이 귀농 · 귀촌 생활이 보람되고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핸드폰에다 하루하루 일 계획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마칩니다.

또한 광하2리 이장님 밑에서 마을 총무 일을 2년 동안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귀농"이란 어려운 단어지만 본인이 마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적교류, 농사 정보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찾으면서 일거양득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얻는 만큼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로 귀농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한기(겨울철)가 길다면 길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것인가? 물론 봄 농사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귀한 추운 시간을 그냥 보내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밭에 작물 이름과 파종한 날짜 기록

작물을 키우기에는 기온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고, 마을 영농회하고 협의해서 마을 공동체로 인터넷 판매도 가능할 것이고, 품목은 다양해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마을 주민들 소득도 되고, 개인적으로 보람도 찾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계획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을 경험했지만, 귀농 · 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현장 경험이 처방 약입니다.

첫째, 귀농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고, 농사지 면적이 얼마이며, 무엇을 재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종자 품목이 결정되면 정선군에서 농한기에 실시하는 농업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시고 정선군에서 귀농 · 귀촌인분들께 혜택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귀농지의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금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어려워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마을 주민분들은 대부분이 소극적입니다. 그래도 한 발짝 다가서서 대화하면 소통은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교육과 혜택을 받으시면서 현장 경험으로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 약간의 시행착오는 겪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희망상

2017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로 귀농한 김홍태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귀농하신 분, 귀농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2017년 12월 정선 임계로 귀농한 4년 차의 초보 농부입니다. 27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전혀 연고가 없는 정선 임계에 정착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북 상주가 고향인 제가 강원도 정선 임계에 자리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시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서 동네에서는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조금은 똑똑한 아이로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에게는 항상 자랑거리이셨지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항상 마을의 자랑거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낙향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동네에서는 다소 이상한 이야깃거리가 되어 버리더군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고향이 아닌 제3의 터전에서 살고 싶은 생각으로 2017년 4월 회사를 사직한 후 여러 지역을 둘러보게 되었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을 7개월 동안 둘러보고 중간중간 귀농을 위한 귀농 · 귀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귀농 · 귀촌을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강원도 지역을 둘러보던 중 정선 임계 도전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고, 방 한 칸을 월세 내어 1개월을 머물면서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의 편안함과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게 되었으며, 2017년 12월 임계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정선주민이 되었답니다.

2018년 4월에 임계면 송계리에 약 2,400평 규모 위 토지를 구매한 후 4월~11월까지 사과 과원 조성을 위한 기본 작업 및 주택을 신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1,800평 농지에 700주 정도의 사과를 식재 하였으며, 현재 식재년도 기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량의 소출이 발생 되어 실질적인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귀농 귀촌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과 농장 전경

01 철저한 귀농 · 귀촌 준비

귀농 · 귀촌의 성공 여부는 사전 철저한 준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상 귀농한 후 이러한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으며,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금전적인 손실도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과 귀농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귀농인지? 귀촌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농과 귀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시골의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한 귀촌보다,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귀농 생활은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적성이 명확하다면 향후 귀농 · 귀촌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 교육 과정들을 반드시 사전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귀농 · 귀촌 후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다 보면 결국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게 됩니다. 또한 시골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자격증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굴삭기, 지게차, 로더 면허를 취득하였답니다.

또한 목공 관련 기술도 배워 두시면 시골에서는 자급자족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며 이때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다만 저는 용접 관련 기술을 사전에 배우지 못해서 다소 아쉬웠답니다. 용접 관련 기술도 꼭 배워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교육은 귀농 · 귀촌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서 향후 각종 민원처리하실 때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연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토지 구매

귀농 · 귀촌을 하시면 제일 먼저 닥치는 어려움이 토지 구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다닐 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가 관장하는 부서에 있었기에 토지 구매부터 주택등기 등 모든 계약 및 등기를 직접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답니다. 사전에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공부를 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지를 구매하실 때는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최소 3개월 정도는 거주하시면서 거주지 이장님 및 주변 분들의 토지를 소개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인터넷 및 유선상으로 토지를 보고 결정했다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 등을 구매하여 향후 사용 목적과 맞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역 거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도 좋아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03 지역갈등 해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농 ·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방인입니다.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잔잔한 연못의 한가운데 돌 하나가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귀농 · 귀촌하시는 다수의 사람이 지역 사회의 텃세로 인하여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텃세가 아닌 먼저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고 그분들만의 권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용한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정착하게 되면 한동안은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의 생활은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분의 지금까지 생활 방식이 이와 다르다면 기존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게으르다고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느낀 중요한 첫 번째는 무조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이 늦게 일어나는 생활 방식을 가지셨다면 귀농 · 귀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신 분 그 양반은 참 부지런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신다면 귀농 · 귀촌은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 그 사람 게을러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부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지런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베풀고 이러한 관용의 마음이 귀농 · 귀촌의 성공을 가져오는 필수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행사는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하고, 만나는 모든 어른께 인사 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귀농 · 귀촌하시는 분이 하시는 많은 실수 중의 하나가 토지 구매 후 옆집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에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토지 구획을 명확히 하여 측량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울타리 없이 살아오신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낯설어 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없이도 잘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들어와서 울타리와 경계선을 긋자고 하는 순간부터 아마도 갈등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토지를 구매 후 경계 부분이 아주 모호하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어서 과수원 조성 및 기계 작업에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토지와 인접한 2분을 모셔다가 상호 합의하고 일직선으로 긋는 작업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두의 토지가 넓어지고 기계 사용하기에 아주 용이한 토지가 되었다고 다들 좋아하셨답니다. 물론 제 토지의 손실은 조금 보았지만, 이는 언제든 좋은 시점에서 측량을 통하여 상호과 부족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하기로 서면상으로 약속을 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여기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귀농 · 귀촌 초기에 토지 관련 측량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이러한 행위로 토지의 구획은 명확해졌지만 이와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명확한 선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 아셔야 합니다.

04 가족들의 동의 구하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 출근하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귀농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으니, 그 당시 제 집사람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 제가 미안했으면 2020년 9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서경석 양희은의 여성시대에 “이제 그만해라 더는 떨어질 간도 없다”라는 사연을 보내서 방송으로나마 용서를 구하기도 했답니다. 처음 토지를 구입하고 집도 없이 지낼 때 집사람과 자녀들이 와서는 당황해하던 얼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과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게 되고, 집 주변의 꽃들이 피면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주변의 경관들을 즐기면서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보금자리로 인식이 되었답니다.

나의 귀농에 흔쾌히 허락해준 소중한 가족

가족들의 동의와 협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와서 지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귀농 · 귀촌의 실행을 조금 늦추더라도 반드시 합의된 귀농 · 귀촌을 시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05 예산 만들기

귀농 · 귀촌하시는 분들중 많은 분이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는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변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과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농 · 귀촌 시 자신이 계획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집을 신축하는데 1억원의 비용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인허가 및 건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 이상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의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가지기에는 귀농 · 귀촌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귀농 · 귀촌후 집 짓고, 토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결국 운영자금이라는 경영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땅은 있으나 그 땅에 투자할 경영비가 고려되지 않았으면 결국 종자 비용, 인건비, 농약대, 농기구 구매비 등 모든 비용이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작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돈의 흐름을 고려한 경영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사과의 경우 최소한 3~5년 정도의 경영비를 고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06 전문적인 지식 배우기

귀농 · 귀촌후 하실 작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과가 향후 고랭지 지역의 적합 품목으로 보고 결정한 이후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과 기초반 교육 및 아리아리농업대학 2회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강릉원주대학교 사과 마이스터 2년 과정을 시작했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초 지식을 반드시 습득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이상 제가 경험하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귀농 · 귀촌을 고민하시는 모든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귀농 · 귀촌을 준비하시는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인이 판단해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귀농 · 귀촌하신 분께는 조금 더 손해 보고 자세를 낮추어, 겸손하게 주변에 다가가자고 제안해 드립니다.

농촌에서의 생활이 어려웠던 과정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귀농 · 귀촌하신 선배들의 경험들과 그들이 겪은 실패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미래발전상

2016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로 귀촌한 강지혜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귀촌 이야기

2016년 1월 16일에 정선군 북실안길 269-225번지로 귀촌을 했습니다. 귀촌 전에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였고, 귀촌하기 전 제 직업은 변호사사무실 상담실장을 하고 있었고 제 배우자는 화가이고 자연 미술학교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수원 땅 지역개발로 옮겨야 할 때 마침 정선에 계시는 지인분이 사업의뢰가 있어 배우자가 먼저 정선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지만 사업 진행은 잘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예전부터 귀촌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아래 지방 영남 호남지역을 여행 삼아 돌아보면서 어느 지역을 가야 잘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따뜻한 지역을 원해서 남쪽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연은 따로 있는 것인지 사실 강원도는 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원치 않는 지역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서울로 오려는 배우자와 고민 끝에 내가 정선으로 갈 테니 예전에 계획했던 귀촌 생활을 시작하자고 설득하고 2017년 지금의 주소 땅을 매입하고 5월부터 바로 집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말까지 꼬박 만2년을 집 짓는데 우리 두 사람은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집 위치는 700고지 높은 지대에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전기도 물도 없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골짜기로 집짓기가 힘든 위치이기도 하고 대형트럭도 레미콘도 올라오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일하는 인부를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게 큰 비용이 들어 직접 남편이 설계하고 둘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1t 트럭을 구매하고 진천으로 서울로 다니면서 자제를 구하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위하여 근처 고물상도 돌아다녔습니다. 2015년 5월 집터에 포크레인 토목공사를 하고 휴식 삼아 근처 고물상에 갔다가 개한테 물려 일주일간 한국병원에 입원도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움도 많고 난제 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시내에 방을 구하고 2년간 출퇴근을 하면서 집 짓는 일을 하고 겨울에는 다시 서울로 가서 잠깐이나마 직장을 다니고 봄이 되면 다시 정선으로 와서 집을 짓고 생활하였습니다.

사실 귀촌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후까지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큰일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언젠가는 가야지 생각했던 귀촌을 이참에 하자, 해보자 했습니다.

조그만 집을 사서 아니면 작은 농막을 지어서 쉽게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직접 설계하고 원하는 집으로 직접 지어 살기를 원했고 또 직접 집을 짓는데 애착도 가고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따랐지만, 고생 끝에 지금은 개성 있고, 근사한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우리 부부 둘이서 지은 집이기에 애착도 가고 또 흔치 않은 자연 돌로 집을 짓고, 개인 설계로 자연 친화적 재료인 돌과 나무로 지은 집이어서 아이들이나 친구들

자연과 어울리는 집&연못

또 이웃들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둘이서 지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승리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 되는구나. 대단하다 칭찬 아닌 칭찬을 들으며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정선에 와서 멋진 집도 짓다 보니 EBS 한국기행에 두 번 방송이 나가고,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가다 보니 예전에 멀어졌던 소식이 끊겼던 친구들과 아는 분들이 많은 연락을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정선에 온 지 만 5년이 넘어갑니다. 많은분들이 얘기합니다. 돈이 웬만큼 있으니까 직접 집도 짓고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귀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말 못 할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청산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직장생활 할 때는 직장연금을 퇴직 후 목돈으로 받기도 했고 개인 자영업 일이어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고, 개인연금도 어려울 때 해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용감하게 귀촌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못하면 후회할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시에 있으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실생활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먹고살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주위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돈을 모으고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도시에나 귀촌한 시골에서나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시골 생활이나 전원주택 생활을 얘기하면 꿈같이 누구나 가고 싶다고 귀촌하여 약간의 땅을 가꾸며 먹을 만큼 텃밭도 가꾸고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떠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로망이라고 가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하고 절실하지 않고 또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 끝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돈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귀촌 · 귀농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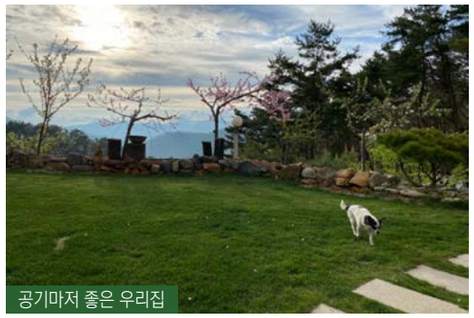
어느 책자에서 보니 인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이도 크고 나이가 들면 성지순례나 기도의 삶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속세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가진 거, 가지려는 마음,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겠지요.

저도 오래전부터 나이가 좀 들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많은 사람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지방으로 떠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단순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도 좋고 직장도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젊은이한테 양보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시골은 장년이나 노인만 남지 않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신다면 부모님 뵈러 오신 자녀들이 자연스레 시골도 알고 농사도 알게 되어 도리어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귀농 · 귀촌하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정말 산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살아갈수록 감탄을 하게 됩니다. 또 공기는 얼마나 좋은지요. 도시에 일이 있어 하루 이틀 자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정선으로 집으로 가고 싶어진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할까요. 공기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회색 도시 두통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리랑센터에서 해마다 얼마나 많은 공연이 있는지요. 도시에서는 작은 공연이라도 가려면 준비와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정선에서는 수시로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보여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만 공연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이나 시골에 또 이 정선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 통계를 보면 이제는 정선군민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방 도시나 정선군에 합심하면 귀촌 · 귀농의 삶을 알려야겠습니다.

지인이나 친구들은 말합니다. 제 귀촌 삶이 부럽다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얘기합니다.
시작하면 된다. 귀촌 · 귀농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움직여라.



공기마저 좋은 우리집

도시에 사는 만큼 열심히 살고 또 스트레스받고, 그만큼만 하면 이 시골의 귀촌의 삶은 얼마나 편안한 삶이 되는지 단순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나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전원 귀촌인지 꼭 모든 게 갖춰지고 돈이 있어야 하고 꼭 농사를 지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열심히 얘기합니다.

부지런하면 일자리도 도시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하던 일은 아니지만, 눈높이를 낮추고 생각을 바꾸며 도시처럼 남의 눈 의식 할 필요 없이 내 상황에 맞춰 자유로운 일용직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나가면 시간도 돈이 드는 생활이지만, 여기서는 비록 도시의 절반밖에 수입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에 귀촌하고 저는 그해 8월에 직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선읍사무소에 가니 여성회관으로 안내를 해주었지요. 하루에 다섯 시간 일하는 노인복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말동무가 되고 친구도 되고 이웃이 되어 함께하는 보람찬 일입니다. 제 배우자는 예초기 일을 배워서 봄부터 가을까지 산 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그름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면서 겨울에는 그림을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2월에 전시회가 잡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마음을 다해 살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의 군민으로서 정말 정선이 발전하고 다시 인구가 늘어 가는 상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정선에서의 삶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잘 살아 있으니까요. 정선에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나눔상

2012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로 귀향한 최승철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귀촌 이야기

정선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1991년 고교진학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2012년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선읍으로 귀향한 최승철입니다.

귀향하기 전 서울에서 피트니스센터 운영과 에어로빅 교육 및 지도자 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정선읍에서 음식점(정선풍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향! 정착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나의 선택 그리고 결과는 옳았다. 지금 정선의 삶, 난 모든 것이 행복하다.

교통이 불편했던 1975년 가을날, 출산이 임박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비군 훈련으로 며칠 집을 비우시자, 시부모 집에서 출산하고자 힘든 걸음을 하시다 너무 힘들어 정선읍 신월리 논두렁에서 나를 낳으셨다고 한다.

한창 추수를 하시던 동네 어르신이 낫으로 탯줄을 잘라주면서 나는 세상과의 인연 그리고 정선군민이 되었다. 더 나은 미래를 살길 바라는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따라 1991년 춘천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나의 홀로서기와 타향살이는 시작되었다.

처음 타지 생활은 부모님과 떨어짐이 아쉬워 눈물로 그리움을 달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상처 드리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

대학교에서 레저 스포츠 학과를 전공 및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피트니스센터(복합운동시설)운영과 에어로빅 교육 등 운동 지도 관련 일을 하였다. 지금의 집사람도 당시 세 개 운영중이던 피트니스센터 직원 중 한 명이었다. 많은 직원 중 웃는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술 몇 잔의 힘을 빌려 조심스레 고백하여 지금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에어로빅을 전공한 나는 남자 강사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청일점으로 잡지 촬영 및 방송 출연을 다수했었고, 유명 호텔, 유명 피트니스센터에서 메인 강사로서 바쁘게 생활하였다. 당시 1만 명이 넘는 에어로빅 사관학교(Daum 카페)를 운영하며 많은 행사와 교육, 방송했다.

에어로빅 교육, 행사 등

내 직업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일이라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직업으로서 불안정하고 경쟁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로 인한 경쟁이 심해져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십여 년의 도시에서 직업 생활, 돌이켜보면 벌이도 괜찮았고 재미는 있었지만, 출근부터 퇴근, 모든 곳이 전쟁터였고, 편안해야 할 집에서도 이웃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모든 부분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삶이었다.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늘 바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 냄새가 그리웠다. 삭막한 도시에서 나와 가족의 미래는 우울할 것 같았다. 자식에게도 여유 없는 생활, 비교되는 삶을 사는 도시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곳에서 추억을 만들고 인간미 넘치는 생활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늦기 전에 지친 도시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게 되었다. 부모와 친구가 있고 추억이 가득한 고향 정선이 가족의 선택지가 되었다.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향을 '모천회귀(母川回歸) 본능'이라고 한다.

부모님과 친구들, 내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 그런가? 고향이 그리웠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등의 이유로 고향에 올 때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지점 어느 즈음에 오면 고향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 향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움과 편안함의 그 냄새, 그냥 기분이 좋았다.

귀향 결정!

걱정은 앞섰지만 새로운 시작, 이른 시일에 정착을 목표로 정하고 나니 귀향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고, 집사람과도 가족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한 끝에 쉽지 않은 정선으로의 귀향에 동의해주었다. 결정 이후 몇 개월 만에 미련 없이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행동으로 옮겼다.

정선으로의 귀향 결정은 개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많은 선택이었다. 부모님께서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추억을 더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연로하신 부모님 손발이 되어 보살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도시에서 살았다면 부모님에 미안함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람조심, 차 조심 등 모두 조심해라 의 삶이었을 텐데 귀향을 하니 부모님 및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좋았다.

귀향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 건물 1층에 40평의 빈공간이 있었다.

귀향을 알아보고 있을 당시에 정선 오일장, 정선 관광지 등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때라 인근 음식점(싸리골, 동막골)을 비롯하여 시장 골목 많은 음식점이 인산인해로 호황을 누릴 때였다. 귀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 1층 빈공간에 '음식점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어떤 음식점을 해라' 등 관련해 많은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정선에서의 직업은 음식점 운영으로 결정되었다.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귀향 후 첫 공사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지인에게 맡긴 공사는 사흘 만에 천만 원이라는 돈만 떼이고 사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업체 만에 겨우 공사를 마무리하며 금전적 손실과 상처를 안고, 준비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개업하였다. 결과는 걱정한 그대로였다. 전문 지식이 없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급한 행동이 문제였다.

모든 게 낯설었던 음식점 일은 가족 간 손발도 맞지 않고, 차별화된 음식도 없고, 없는 손님에 희망보다는 스트레스와 매월 금전적 마이너스로 몸과 마음 모두 지치는 삶이었다. 경험 부족, 특별함이 없으니 이 난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채 긴 시간을 허비하며 보냈다. 그렇게 고민만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마이너스의 삶을 5년 가까이 보낸 것 같다. 음식점을 포기할 순 없었고 어려운 운영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보험영업, 복지관 체육 시간강사 등 부업을 통한 수입을 더 했지만, 그마저도 부족하여 보험회사, 은행 대출로 근근이 버티며 생활을 이어갔다.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식당을 포기할까? 그냥 취업할까?

가족들끼리도 희망보다 부정적 얘기만 계속 오갔다. 답이 없는 마이너스 생활 속에서 또 한 번 결정의 시간이 필요했다.

결론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취업보다는 음식점에 확실하게 집중하고 올인하자였다.

복지관 체육 시간 강사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그동안의 메뉴, 운영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꾸기로 했다. '정선에 없는 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하자', '부업을 정리하고 식당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다 바꾸자!'라는 것이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부터 음식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맛집을 찾아 가고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메뉴 연구 및 음식 연습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현재 본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

그 노력의 결과로 현재는 계절별로 구분하여 점심 메뉴, 저녁 메뉴를 다르게 판매하고 있다.

꼬막비빔밥, 초계냉면, 칼제비(칼국수수제비), 오삼콩불(볶음), 해물닭백숙(해신탕), 묵은지해물닭볶음탕, 고돈묵전골 등 노력 끝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색메뉴는 관공서와 직장인들에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손님이 꾸준히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현재도 메뉴는 계속 개발 중이고 지역 손님들을 위해 색다름으로 먼저 다가가려 하고 있다.

좀 더 일찍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무튼 모든 게 감사한 지금이다. 그렇게 오랜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선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0개월 된 첫째를 앉고 귀향한 후 지금은 자녀가 셋이 되었다. 부모님이 계셨고, 정선군(정선어린이집 : 오후 9시까지 운영)에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해주었기에 하나가 아닌 세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해주기에 일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고, 부모님, 세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딸 둘, 아들 하나. 행복한 우리 가족

2016, 2017 정선아리랑제 개막 공연 '무극', 가족이 공연하는 모습

수 있었다. 이 모든 행복은 정선으로 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도시에서는 살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살아보니 정선은 여러모로 대박이다. 도시에서의 삶보다 여유도 많고 혜택도 많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대부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보를 몰라서 못 누릴 뿐이다.

내가 선택한 업종인 음식점 관련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정선군 경제과, 보건소, 정선군활성화재단 등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메뉴 개발, 업소 용품 구매 지원, 시설개선, 홍보,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실질적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다. 정선군청 홈페이지 등 여러 정보 채널에서 매년, 수시 공지를 하고 있으나 몇십 년 장사하시는 분들도 몰라서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을 계기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선, 참 살기 좋다. 군민이라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공연, 체육시설, 영화관, 수영장, 키즈카페, 돌봄 시설, 도서관, 공원 등 일부 없는거 빼곤 누구나 공평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다. 정선에서 함께 살기에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무료공연도 보고 공원에서 맘껏 뛰어놀고 함께 수영하고 등 많은 시간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도시에서 살았다면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나는 정선이 너무 좋다. 큰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으며 살고 있다.

앞으로는 내가 받은 걸 정선을 위해 베풀며 살고 싶다. 나는 지금 정선군민 소통밴드 '정선뉴스 정선이야기' 운영자다. 정선이 좋아 정선군민과 소통하면서 살고자 개설한 밴드는 어느덧 1,500명이 넘는 숫자와 함께 정선군민들과 함께 정보 나눔과 작은 소통의 공간이 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시켜 남녀노소 정선군민이 정선을 위해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정선 복지, 정선군 활성화 아이디어, 정선만의 이색 기획 등 정선 관련 다양한 분야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며 정선을 위해 살 계획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도 틈나는 대로 꾸준히 메모하고 조금씩 행동하고 있다.

내 고향 정선이 좀 더 활성화되어 지금보다 활력이 넘치는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리아리'는 정선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단어이다. '아리아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설사 불가능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만들자', '길이 없으면 찾아가고, 그래도 길이 안 보이면 길을 내자'라는 파이팅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현재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멋진 의미를 가진 우리말이다.

귀농 · 귀촌 귀향,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삶은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생각만큼 쉽지 않다. 힘들 각오와 마음의 준비, 임기응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결정하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정착 시 시간 낭비 및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성공 정착한 사람들의 글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직접 부딪혀 본 현실은 이론과 다를 것이다. 모든 것은 본인이 준비한 만큼 노력하고 행동한 만큼 얻는 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다.

나는 도전을 선택했고 안정적 정착을 하게 되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픔의 시간은 있었지만, 결과는 행복으로 바뀌었다. 나의 행복한 정선 생활 귀향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준비를 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비 정선군민 모두의 건투를 빈다.

2016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로 귀향한 장영기님의 이야기입니다

귀향(歸鄕)

저는 정선군 여량면 출신으로 2016년 봄에 귀촌하여 북평면 항동길에 둥지를 튼 6년 차 초보 농부입니다. 귀촌하기 전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현재 소농(밭, 약 2천 여평)으로 작물을 경작하며 북평2리 경로당 사무장으로 일하며 약간의 가금류와 염소 몇 마리를 사육하고 정선군 아라리 명예 기자로 격월 간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정은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라 한다. 영혼의 본향이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육신의 고향은 내가 태(胎)버린 정선 땅이다. 회유성 어류인 연어는 강에서 부화하여 치어 때 강에서 자라면 송어(산천어, 초고리)가 되고, 큰 바다에 나가 자라면 연어가 되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시 모천(母川)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장렬하게 죽는다고 한다.

지난날 나의 인생의 노정(路程)을 되돌아보면 '아우라지 강가에서 한강까지' 젊은 날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하여 나래짓 다 노년에 살 곳을 찾아 긴 여정을 돌고 돌아 정든 땅 언덕 위에 인생 이 막의 둥지를 틀었다.

귀촌 동기

중, 고교 졸업 후 줄곧 객지 생활을 해왔다. 베이비붐(Bay boom)세대인 나는 산업화 시대의 급류에 휘말려 고향에서 살 수 없었다.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시, 충남 논산시, 경북 영덕군, 경기 평택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그러니까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5개 도시를 유랑하며 집시(Gypsy)같이 살아왔다. 물론 직장을 따라 발령을 받고 움직이게 되었다. 서울에서 이십여 년간 살다가 정착을 하였으니 가장 오래 산 곳이기도 하다.

그 배경은 물론 아내가 서울 토박이여서 처가의 후원을 많이 받은 탓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제 아래, 삶의 중심 권력이 서울에 몰려 있는 탓이기도 했다.

젊은 날 꿈에 그리던 동경의 도시가 서울이어서 꿈을 이루기 위함이 나의 목적지였었는지도 모른다. 나이 들면서 고향이 그리워지면서 'KBS 6시 내 고향'이 애청 프로가 될 정도였다.

급기야 '향수병'(Nostalgia)에 시달려 몸이 쇠약해짐을 느끼게 되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강원 판 자동차 번호만 봐도 마음이 설레어 쫓아가서 강원도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한 철마다 보내주는 친척들의 향토식품으로 입맛을 달래곤 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내 꿈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 은퇴 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시절 읽었던 책들이 헨리 나우웬 작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소박한 밥상』 대천덕 신부의 『산골짝에서 온 편지』 법정스님의 『무소유』 등이다. 지금도 기억에 아련한 글귀는 시인

릴케(Rainer Maria Rike)가 『말테의 수기』에서 쓴 '도시탈출' 표현이다. 그는 프랑스 도시에서의 기거(寄居)를 "어항 속에 갇혀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금붕어"에 비유했다. 맞다, 내가 서울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이제는 사람도 싫고, 명예도, 돈도, 다 싫다.

내가 사는 길은 '산 좋고 물 맑은 내 고향 정선' 땅으로 가야 한다. 자나 깨나 내 마음속 일념은 고향(故鄕) 땅이었다. 그때 내가 부른 동요가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와 유행가 오기택의 '고향 무정'이었다.

아내의 설득

"여보! 나는 매연 탓에 공기가 탁하여 더는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소, 시골로 가 야겠소." 서울에서 태어나 시골이라곤 일가친척도 없는 서울 토박이 아내가 선 뜻 허락할 리가 없었다.

"당신! 계속 서울에서 살면 나는 죽고, 당신은 혼자 사는 과부 돼, 어떻게 할거예요?" 아내의 처음 반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반신반의였다. 나는 무작정 혼자 새벽 한 시에 일어나 승용차로 정선으로 향해 길을 떠났다. 저녁에 서울을 탈출하자면 교통 체증으로 한 시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새벽을 이용한 것이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진부 I.C까지 와 진부에서 여관에 투숙도 하고 이튿날 정선으로 내려왔다. 그땐 아직 2018 동계올림픽 이전이라 길도 험하고, KTX 길도 닦는 중이었다. 문제는 거처(居處)였다. 살던 곳은 여량면이였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인들과 친구들이 어디에 사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일단 시골로 내려와서 북평면 '항골 펜션'에 월 셋방을 얻었다. 어떤 날은 진부에서 숙암 골짜기를 거쳐 내려오다가 보면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며 새벽 동이 터 오는 것이다.

펜션에 도착하여 전기밥솥에 곤드레나물밥을 해 먹고,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받아먹는 홀아비 자연인 산신령(山神靈)이 되었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하여 살맛이 났다.

붉은 언덕길 아래 아스라이 전등불 비춰주는 북평면 동네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이 정겨웠다. 그러나 나 홀로 몸만 왔으니 토요일이면 또 상경하여 직장에 근무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는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그 생활이 약 일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후 아내 이름으로 북평면에 텃밭을 샀다. 조금이라도 서울 왕복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기 위해 여량면 아닌 북평면에 기거하게 되었다.

그해 봄 나 혼자 먼저 내려와 수도를 신청하고 배추와 무, 치커리, 고구마, 감자 농사를 시작했다. 펜션에 거주하면서 아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한번은 아내와 딸아이가 잠시 내려온다는 전갈을 받고, 산에 가서 진달래꽃과 이팝나무꽃을 꺾어 꽃병에 장식하고 계단 입구에도 화분을 갖다 놓았다. 아내와 딸이 와서 보더니 '항골 펜션' 정원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다. 잎이 늘어진 등나무 아래 야외 평상에 둘러앉아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어 먹고 정선 5일장도 구경하며 우리 가족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상경 후 아내가 "시골의 삶도 괜찮을 것 같다"고하여 아내 이름으로 시골에 집을 짓기로 약속했다.

언덕 위에 목조 주택을 짓다

처음에는 컨테이너 6평짜리로 생활해 보려고 생각해서 양평 컨테이너 이동식 판매 주택을 보려고 아내와 한두 차례 다니면서 견적을 내 보았다. 문제는 이동하는 대형 트레일러 운반비며,

정화조 허가, 전기 수도, 공사비를 포함 주변 인프라 기초공사를 합하면, 집을 현장에서 짓는 값이나 비등하다는 견적이 나왔다. 아내와 딸아이가 불편하면 귀향길이 막힐 수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따라야 했다. 아내의 관심은 주방의 편리인 것 같고, 딸아이는 예쁜 언덕 위의 그림 같은 집을 짓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설계도와 밑그림을 딸아이가 정해 놓았다.

문제는 예산이다. 턱없이 부족하여 고민할 때 귀농·귀촌자의 군청 보조비(오천만 원

융자)가 큰 힘이 되었는데 그해 한 면(面)에 다섯 집 밖에 집짓기 보조가 안 된다고 하여 나는 커트라인 밖 여섯 번째로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

운 좋게 내 앞, 신청자가 집짓기 신축 신청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다섯 번째 꽁지로 확정되어 정선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집이 지금 살고있는 아담한 우리 집이다. 딸아이가 설계한 꿈대로 그립던 고향 땅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게 되었다.

이 집 설계는 '주택잡지'에 아름다운 집으로 등재된 모델형 구조이다.

첫 농사
시작과 양계

귀농 · 귀촌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농사가 야채류요, 가금류인 닭을 기르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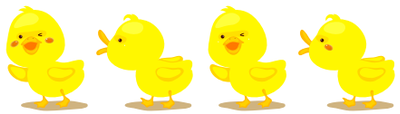
나 역시 신선하고 건강한 채소와 달걀을 공급받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재미도 느끼며, 덤으로 '꼬끼오~'하고 홰를 치며 울어대는 수탉의 울음소리는 시간을 알림은 물론이고, 소년 시절의 옛 추억을 회상케 하는 전원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이다.

첫해 가을에 병아리 아홉 마리와 중닭 다섯 마리를 분양받아 시작했다.

어느덧 아홉 마리 병아리도 잘 자라 중닭이 되었는데 그중 세 마리가 수탉이다. 총 네 마리의 수탉들이 서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로 암탉들을 독차지하려고 싸움질을 한다. 그중 힘센 놈이 한 마리 있어 닭장 안에서 대장질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치열한 서열 다툼으로 온통 닭장이 소란스러워 그들의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수령(數齡)을 구분하여 중간 칸막이로 격리해 주었다.

이제는 다 비등하게 자라 어미 닭이 되어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 주니 우리 가족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일조해 주는 셈이다. 올해 봄에는 자력으로 암탉들이 병아리를 부화하여 오십여 마리로 늘어났다. 이웃집에도 분양해주고 친구들에게도 나누어주어 지금은 숫자를 많이 줄였다.



사위와 딸이
집 근처에 집을 짓고 이사 오다

서울 분당에 살고 있던 딸아이가 사위와 함께 집 근처로 귀촌을 했다. 사위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곱 살 때 캐나다에서 성장하고 공부를 했고, 우리 딸은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후 해외여행에서 만나게 되어 결혼했다.

귀농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부친의 고향이라 옆 가까운 거리에 함께 살고 있어 손자 손녀들을 자주 만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재롱에 노후의 삶이 한층 더 즐겁고 행복하다.

흑염소 분만과
사육 이야기

염소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작 동기는 밭의 풀 때문이다. 무성하게 자라나는 풀을 감당하기 어려워 염소 두 마리를 사들였다.

지난 겨울 열심히 염소 사료, 콩깍지를 구하여 럭키(숫)와 사랑이(암) 두 마리를 길러 왔는데, 드디어 두 번째 출산했다. 첫 새끼 사월인(작년 4월 5일 출)가 태어나 생후 일 개월 만에 초보 농부의 관리 미숙으로 그만 수놈 럭키의 압사로 죽었다. 그놈을 안고 얼마나 인공호흡을 시켰던가?

시간이 갈수록 까만 눈이 흐려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 염소 우리 옆 사과나무 그늘 아래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 수목 장례를 치러 주었다.

일 년을 기다려 다시 사랑이가 분만을 했다. 낮 10시부터 암양이 분만할 기세를 보여 아내가 여보, 사랑이가 새끼를 낳으려나 봐, 빨리 나와 보라고 재촉을 하여 염소 우리로 나가보니 암염소 자궁에서 벌써 양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새끼는 아비를 꼭 빼닮은 까만 깜순이 암 아기 염소가 나왔다. 아직 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또 금방 한 마리가 더 나 올 것 같았다. 2~3분 후에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어미를 닮은 흰색 줄무늬 새끼가 나왔다. 예상은 미리 하고 있었지만, 암염소의 초산 후 두 번째 분만은 2~3마리를 낳으리라 예측했다.

아내는 분만하느라고 애를 쓴 어미 염소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사과와 양배추를 먹여주면서 "사랑아! 너무 고생했어." 하면서 연신 어미 염소 사랑이의 배를 손으로 쓰다듬어 준다. 그런데

한 5분이 지나 또 뱃속에서 요동치는 흔들림과 어미 염소가 발로 바닥에 흙을 파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더니 급기야 세 번째 새끼가 나왔다.

이번에도 어미를 닮은 흰 줄무늬 모양의 암염소 새끼다. 세 마리의 암염소 새끼를 분만하고 지쳐 있는 사랑이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암염소는 출산한 새끼들을 입으로 핥아 주느라고 애를 쓴다. 아내와 나도 수건과 휴지로 열심히 새끼들을 닦아주고 양지바른 곳에 상자에 넣어 격리해 주었다. 딸 아이가 또 수건과 헌 옷가지를 가지고 와 신기하다는 듯, 휴대폰으로 새끼들의 사진을 찍어 댄다. "와 ~~ 예뻐." "그래, '아름답다는 말은 '앎음'속에서 온 말이야. 아픔이 없이는 아름다움과 예쁜 작품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3시간 동안 염소 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오니 오후 3시가 넘었다.

초보 농부로서 궁금하여 인터넷을 뒤져보며 어떻게 사육하는가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좀 잘 길러 보겠다고 다짐해 봤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하더니. 하루가 지나 첫 번째로 나온 깜순이 새끼 염소가 앞 두 다리를 못 쓴다. 아 ~ 어쩌냐, 아내는 새끼염소를 안고 열심히 마사지해주고 초유(初乳) 짜서 입에 물리고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열심히 간호를 아끼지 않는다. 밤새 깜순이 때문에 고민이 생겨 우리 부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날이 밝아 읍내 가축병원으로 우리 부부가 첫 번째 깜순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이처럼 울어대는 염소 새끼를 내가 안고 아내는 차를 운전했다.

"여보, 아주 천천히 가, 이놈이 첫 나들이라, 차를 타니까 무서운가 봐" 한참 달려 정선 가축병원에 도착하여 수의사 원장님의 진찰을 받았다.

원장님이 깜순이를 진찰하시고 "아이고! 다리 무릎 부분이 풀리지 않네요. 너무 심한데 애는 장애로 살아야 해요" "선생님 어떻게 수술이라도 받으면 안 될까요"? 안타까운 원장님의 표정을 아내가 살핀다.

"애는, 무릎 수술이 불가합니다." 원장님 말씀이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나는 낙심천만이었다. 어찌하지?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깜순이의 살아갈 앞날을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다산(多産)? 작년 겨울 사랑이가 뱃속에 세 마리의 새끼를 임신하고 너무 몸이 무거워하더니 운동부족과 영양부족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젠 근심에서 체념으로 마음이 변했다.

집으로 돌아와 염소 우리를 정돈하고 젖을 짜서 깜순이를 먹이고 거실로 데리고 들어와 상자 속에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주고 보살핌에 들어갔다.

"너의 운명이 장애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사람의 손이 많이 가겠지만, 잘 자라다오, 깜순아! 너를 끝까지 잘 돌보아 줄게, 내가 그놈에게 한 다짐이다.

밭작물 블루베리와 들깨 농사

이웃 동네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분이다. 형님이 하루는 우리 집에 들르셨다. 지나온 옛이야기를 나누며 형제들의 근황을 묻고, 내가 귀촌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애쓴 분이다.

형님은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한다. "동생도 좀 해 보게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기술을 전수하여 줄 테니까. 해 봐, 밭 작목으로는 경제성이 괜찮은 농사여" 형님은 작목반에 들어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 간다고 했다.

나도 그해 형님과 같이 군청으로부터 50% 보조사업으로 블루베리 묘목 100주를 동강 근처 농장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 작물은 사질토(沙質土)라야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여 밭에 사질토를 몇 트럭 대토하고 계절별 각종 영양제를 뿌리고 가꾸어 수확하여 가족 건강식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가의 블루베리 열매, 내가 직접 작물을 재배하여 보니 왜, 블루베리가 비싸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만큼 재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귀한 작물이다.

귀촌 그해에 들깨 모종을 상토에 직접 부어 아침저녁으로 여닫으며 관수 하여 풍작을 이루었다. 들기름을 생산하여 지금까지도 냉장고에 보관하여 먹고 깻묵은 닭 사료에 배합하여 쓰고 있다.

지인들과 친척들이 방문하면 아내는 예쁜 병에 들기름과 밭에서 생산한 산 머루주를 한 병씩 선물로 나누어 준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 귀촌 오 년 차가 되었다.

귀촌 그해에는 집 주위에 울타리 목으로 주목, 전나무, 느티나무, 라일락, 회양목을 심고, 유실수로는 천도복숭아, 매실(청매, 홍매)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심어서 우리 가족과 딸네 가족이 먹고 이웃과도 나누어 먹는다.

시골 생활의 맛과 멋

늘그막에 고향으로 귀향하게 된 내 맘속 본래 이유는, 책을 읽고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나의 근원적 내면에 농촌과 산촌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까닭이 아닌가 싶다. 서정적인 풍경과 노랫가락이, 나의 어려서부터 형성된 촌놈 기질의 그 천성적 DNA 말이다.

동트는 아침에 개 짖는 소리가 좋고, 수 닭이 홰를 치며 '꼬끼오'하고 울면 아침이 밝아오고, 정오를 알려주는 소리가 정답다. 아마도 그것이 내 마음의 안식과 힐링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린 시절, 해가 서산으로 기우는 일몰 때면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촌음을 아끼며 가을걷이를 하던 시골 여인이 정겨워 보였다. 마치『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같이 거무스름하고 건강미 넘치는 맨얼굴의 시골 아낙이 좋아 보였다.

고교를 막 졸업하고 인생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 부친께서는 가까운 거리에 둘째 아들을 울타리로 두고 싶어 하셨다. 동네 누구누구의 딸과 결혼하면 나중에 서울에 집 한 채 사 주시겠다는 권면을 만류하고 서울로 상경했다.

어린 시절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하고 노래하던 "고향의 봄"이 몹시 그리웠기 때문이라고. 나도 귀향 일 년 차 충북 옥천까지 손수 차를 몰고 가서 청매, 홍매, 복숭아 묘목을 구매하여 텃밭에 심었었다. 봄이 되면 자목련과 복숭아꽃과 매실 꽃이 향기를 토(吐)해낸다.

그 꽃핀 언덕에 원거리 친구들이 찾아오면, 냉이와 쑥, 개두릅나물을 따서 손수 건강식을 만드는 아내의 손맛과 집 언덕에서 포즈를 잡는 것이 시골 전원 삶의 멋과 맛이 아닌가! 아침이면 진도견과 애견 뽀리를 앞세우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낭만도 도시인들은 가히 상상도 못 할 맛과 멋이다.

원(遠)거리에서 지인들이 찾아오면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노래방 답답한 밀폐 공간에 가지 않아도, 기타를 치며 마음껏 합창을 부르고 춤추며 흥겹게 놀아도 주위에 소음공해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토종닭, 오가피 백숙을 만들어 무쇠솥에 장작 때어 고아 먹으면 한철 건강은 거뜬히 지킬 수 있으니 이 또한 맛과 멋이 아니겠는가?

친구들아! 정선으로 놀러 오라! 곤드레 산나물 축제와 토속 음식 축제에 어울려서 소싯적 먹던 음식으로 추억의 향취(香臭)를 마음껏 회상하며 음미해 보자.

그리고 노후에 정선으로 와, 모두 함께 귀농 · 귀촌하며 같이 살자!

나눔상

2012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로 귀향한 최을규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2년 경기도 수원에서 정선군 화암면으로 귀향 · 귀촌한 최을규입니다.

귀향 · 귀촌 전 직업은 수원시 개인택시를 운행하였습니다.

수원은 110만 수원시민이 사는 도시입니다. 수원에서 회사택시에 입문해서 15년 무사고 운전에 수원시장 표창장을 받고, 그 어려운 개인택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원은 도시 인구 팽창 화로 빠른 세월에 시가 성장하는 과정이었기에 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 증차가 많았습니다.

개인택시 받기 전엔 회사택시를 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협회에 들어가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서 순경들과 교통 체증이 심한 4R 오차로 자동 신호등을 수동 신호로 바꾸고 수신호로 러시아워 시간대에 채증을 풀어주고 했지요.

수원은 4개 성문이 있지요. 지역 축제가 많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다 보니 각종 행사 시 교통봉사 할 곳이 많이 있고, 교통 봉사자로 상신이 올려져 시장 표창장을 수여 받아 개인택시 수혜자가 됐습니다. 당시 나이 47세였었고, 친구들과 동료들은 부러워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개인택시를 몰고 수원시는 물론이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할만하고, 제 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늘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선 건강이 많이 안 좋았기에 걱정이 되었고, 5남매 중 맏이라는 것이 그 어떤 책임감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명절 때나 고향에 내려오고서 보면 어머니도 농사일하랴 아버지 간호하랴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맘을 간직하고 수원에 가서 영업하고 그랬습니다.

늘 맘이 편치 않았습니다.

귀향 · 귀농을 하고 나서

타향땅 수원에서 십 수년간 고생해서 개인택시를 취득했고, 그 개인택시를 처분하니 아주 아쉬웠지만, 맘을 굳히니 바로 실천에 옮기기로 하고, 가족과 상의 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사란 것이 20살 되기 전에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고작인데 뭘 어떻게 하나? 해서 식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암동굴 내 식당업을 시작했는데, 동시에 농사도 동시다발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화암면 지역에 토마토 재배 농사가 꽤 괜찮은 농사였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선도 농가들의 코치를 받아 가며 시작했습니다.

5월 중, 하순에 정식하고, 7월 말에 수확해서 공선하여 가락동 청과 시장에 출하합니다. 과잉생산, 가격폭락, 전국적으로 토마토 재배 면적이 크고, 철원평야에 수십만 평 비가림 하우스 설치, 엄청난 물량이 청과 시장에 출하됩니다. 이러니 심지어 토마토 5kg, 상자에 500원 단돈 500원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투자비, 인건비, 생활비 매우 힘든 상황 또, 어떤 해는 2020년도 예를 들자면 52여 일간의 우기가 계속되어 전국 토마토는 작황이 매우 안 좋았고, 토마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해였습니다.

햄버거엔 토마토가 꼭 들어가야 제맛인데 품귀현상 5kg 한박스에 도매가 6만 원을 넘나드는 날이 발생하다 보니 토마토 농가들은 눈에 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올핸 돈 좀 벌어보겠는데. 하지만 따서 출하할 물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토마토 농사짓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해서 3년 전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홍금은 중생종으로 추석 무렵에 출하할 수 있는 사과인데, 맛이 일품입니다.

다만, 저장성이 떨어져서 속히 처분하고, 즙으로도 처리하며,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전정 재배기술과 많은 정보 등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금 사과 39개 농가들이 자립회비를 발판삼아 정선 아리리 공연장 한편에 홍금 사과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용해주시고 사과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사과 반에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식당업과 농사를 병행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식당업이 초보인 아내는 더 힘들어하고, 농사일이 초보인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한다지만 경험 많은 농가들에 쳐지고, 그렇더라고요. 해서 눈물을 머금고 식당업을 청산하고 지금은 농사일에만 집중, 몰두합니다.

작년(2020년)엔 풋고추 작목반을 만들고, 여러 농가가 모여서 정보와 친목, 화합, 소통도 하며 아직도 꿈을 키우며 사는 적지 않은 62세 농부입니다. 경작 규모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18개 동 2,000평 홍금 사과 1,000평 400주, 풋고추, 홍고추 3필을 경작합니다.

처음 농사지을 때 경운기 1대로 시작해서 관리기 300여만원, 지원 50% 작년에 큰돈 들여서

중고 트랙터 35마력, 하우스용을 구매했습니다. 농기계의 필요성, 중요성 실감합니다.

귀농 · 귀촌 · 귀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해볼 만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하기보단, 지역을 선택하고 발품을 팔아서 많은 사람과 상의는 하시되 모든 결정은 나 스스로 해야 하며, 뼈를 묻는다는 각오가 있고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농사 10년 차 귀향 · 귀농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동화되어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며 뜻이 맞고, 말이 통하며 도움이 될 사람도 많으며, 함께 마을에 살아도 불편한 사람 또한 있습니다. 독불장군 없고, 인간은 어울리며 살아야지만 쉽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경쟁해야 할 때도 있고,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있으며,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면 또 오기가 생기며, 지역에 봉사하고 우리 마을을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다 보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귀농 · 귀향을 하면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있어도 지원되는 것도 많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저리 2%대를 받을 수 있고, 시설하우스 신청 시 50% 지원 등 농가 주택 등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고, 가족이 함께해야 가산점도 많더라고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원하는 분은 토마토 하우스재배 과정과 지역 농업교류, 도농교류, 정선군농업회의소 농정과 지원요청, 지역 농민들 애로사항, 건의 사항, 함께 하며 함께 성장할 귀향 · 귀농인을 기다려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상

2015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로 귀촌한 박종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귀촌 이야기

저는 2015년 3월 경기도에서 정선군 화암면 석곡 2리로 귀촌한 박종렬입니다.

귀촌하기 전에는 88년 서울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으로 37년간 재직하였고, 이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3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석곡2리 이장과 산골체험 마을 운영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치 좋고 인심이 좋아서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평소에도 고향에 귀촌해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으나 농지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이곳 정선에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농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소문하여 2006년도에 농가주택이 딸린 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농장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귀촌을 위한 결정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제일 걱정이던 아내도 쉽게 마음을 비우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내 마음속으로 이곳 정선을 제2의 고향이라 정하고 미련 없이 귀촌하게 되었습니다. 석곡2리는 정선읍에서 화암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의 좁고 산골을 따라서 6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총 65가구 130여 명이 고추, 옥수수, 감자 등의 밭작물을 심어 오순도순 정겹게 살고 있으며, 평온하여 살기는 좋으나, 특별한 볼거리나 먹거리 하나 없는 평범하고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나는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귀농 · 귀촌인 교육은 물론, 작물별 재배기술에 관한 교육도 받으며 농촌 생활을 준비하였고, 다행히 이웃 주민들도 마을의 정서나 농사 요령들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등 따뜻하게 대해 준 덕분에 처음 해보는 고추, 옥수수 등의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었고,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귀촌 생활을 즐기며 잘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 현장 포럼" 이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교육에 참여하라"라는 마을 방송이 나와 무슨 교육인지도 모른 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마을회관에 가보니 많은 주민이 강당에 모여 있었고, 나도 같이 빈자리에 앉아 교육을 받았다. 그 후에도 교육이 며칠간 계속되기에 나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교육이냐고 물으니 " 새 농촌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설명을 듣긴 했으나 여전히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참석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사업비 5억 원을 받기 위한 교육" 이라는 정도였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라며 시상식에 참여하라는 마을 방송이 나와 마을주민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춘천까지 가서 "기업형 새 농촌사업 선정패"를 받아왔다.

"기업형 새 농촌사업"이란 강원도가 주관하는 시책사업으로 소득 중 심의 경영방식을 도입한 농촌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갈게 되었으며, 농촌에 꼭 필요한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진위원회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면서 마을 일에도 자연스럽게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 마을 정기총회가 열렸고, 임기 만료된 이장선거에서 어느 주민이 나를 이장 후보로 추천하기에, 나는 어리둥절해 하며 "귀촌한 지 2년밖에 안 되어 농사는 물론 주민들이나 마을의 정서도 몰라서 어렵다." 라며 강력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투표를 진행하여 이장에 당선됐고, 새 농촌사업 추진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단순히 마을 일에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어울리고 마을 일에도 참여해 온 순수한 저의 행동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않았나 생각하며, 나는 적은 노력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부족하나마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마을 일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장 업무는 주민을 섬긴다는 마음과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어 어려움이 없었으나, 새 농촌 업무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먼저 이장이 이 일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 농촌사업은 2016년도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5억 원의 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전 이장에 의해 사업이 이미 1년간 진행된 상태로서,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기로 한 계획을 바꾸어서, 인근 농지를 구매하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변경되어, 나의 생각이나 의지로 추진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새로 구매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하며, 특히 그동안 20평 미만의 건축물은 건물주가 도면을 그려서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였으나,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설계에 의뢰해서 건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건축비가 2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계획대로라면 쉬우나, 대지면적이 좋아 발전성이 없는 반면, 변경된 계획은 토지면적이 2배 가까이 넓어 건물을 짓고도 주차장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며, 향후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많아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업계획의 약 30%가 넘는 변경으로서 추가사업비나 추진상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과 군 기술센터와의 갈등, 건축 방법 및 건축업자 선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추진위원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축법 개정에 따라 문제점과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뾰족한 대안도 없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전체계획의 10% 이상의 변경은 불가하여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하여라"라는 전형적인 답변뿐이었다.

암벽에 봉착한 나는 컨설팅회사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니 현직 대학교수로 있는 사업국장이라는 분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설명을 듣고, 추진위원들에게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건별로 토의를 해가며 계획을 수정해 주었다.

수정한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 계획변경을 요청하고, 건축설계를 통해 숙박 동은 군청에 입찰 의뢰 해서 건축하고, 농산물집하장 등 나머지 건물은 건축비 부족으로 수의계약해서 건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건축하기로 한 건물은 공사업자 선정부터 난항이었다.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보니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 곳에 수소문하여 어렵게 선정하였으나 건축 과정에서 설계도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주민동아리 활동, 특용작물 및 경관식물식재 등 순전히 주민들의 참여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문제였다. 이미, 현장 포럼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어 있었으나 농사일이 많은 농번기에는 생계가 걸린 문제로서 주민들이 얼마나 나를 믿고 따라 와 주라 하는 걱정이 앞섰다. 특히, 내가 느끼는 주민들의 성격은 남달랐다. 속마음은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표현을 잘하지 않아 본심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추진위원회와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마을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 주민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시간을 내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함께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 결과 농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계속된 체험지도사 과정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물론, 평일에는 농사일을 전념하고 될 수 있으면 비 오는 날을 택하여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제방 등 마을 공터에 나무 심기와 마을 밭 2,000여 평에 황기 등 특용작물을 심기로 하고 장비와 자재를 구매하여 퇴비와 씨앗을 뿌리고, 비료 주기, 농약 살포와 제초작업에 이어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일정별, 조별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어느 하나 순조로운 일은 없었지만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며, 특히, 일부 장년층들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웰빙식품종합터미널 준공기념 마을 축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여 사업이 1년간 연기되었음에도 끝내 무산되어 남은 사업비로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4년간에 걸친 모든 사업을 종료하였다.

나는 노후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귀촌했던 것과는 달리, 일면식도 없는 객지에서 살아 온 지난 5년간의 농촌 생활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40년간의 공직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민들은 과거에는 힘들게 농사지으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아보려는 열망과 의지가 모여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되어 기쁘고 뿌듯함이 가득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잘 가꾸어 놓은 공동사업장들을 활용하여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고 각종 농산물 판매 등 체험 마을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나 강원도 등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소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체험 마을사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마을 발전과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농촌 마을을 주민의 80%가 노인으로서 향후 10여 년이면 마을이 소멸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내 고장을 지키는 방법은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있고, 사람의 향기가 풍기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서 자손들이 귀농하게 하고, 더 많은 도시민이 귀촌하거나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이 일을 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나의 작은 노력이 합쳐져서 마을이 발전하는 초석이 되게 함으로써, 내 고장을 지켜낸 열정적인 이장으로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고 싶은 각오로 오늘도 나는 산골 마을을 힘차게 누빈다.

나눔상

2010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로 귀촌한 김경화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의 귀촌 이야기

2010년 8월 인천에서 정선군 신동읍 매화동에 귀촌한 김경화입니다.

귀촌 전 남편은 22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막 퇴직한 직후였으며, 저는 중3 딸과 고2 아들을 돌보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10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풍족한 자급자족 농업인으로 솜씨 좋은 남편의 능력을 무기 삼아 조그마한 인테이어 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최장 장마 53일 기록했다지만 10년 전 그 여름 우리 가족이 이사하던 그 시기에 40여 일의 장마를 미리 겪어 보았던 터라 우리 부부는 평화롭게 빗속의 나날을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사 후, 한 달 반가량을 비가 계속 내렸으니 임시로 지어진 방 1개, 욕실 1개, 주방인 집에서 네 식구가 짐도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한 채 갇혀 있어야만 했다. 한여름이라 보일러 설치도 안 되었고, 에어컨도 설치 못 했으니 개울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지루한 장마는 발바닥에 습기를 쩍쩍 달라붙고 곰팡이까지 피기 시작했다. 제습기는 몇 년 후, 대중화가 되었고 당시엔 오로지 선풍기만으로 습기를 잡을 뿐이었다. 물이 빠지지도 않는 흙 마당에 파레트를 놓고 이삿짐 박스를 쌓아 천막으로 덮어 두었고, 조금이라도 해가 비칠려하면 천막을 걷어 말리고 필요한 짐만 집으로 들이곤 했다. 그때 웬만한 짐은 곰팡이가 다 피었고 딸 피아노도 습기에 많이 훼손되었다.

매화동에서도 아주 깊숙이 자리한 우리 집은 700m 고지에 가까운 이웃집도 농로를 따라 1km 이상을 가야 했고, 500m가량 더 떨어진 집까지 셋집이 전부였다. 그 외진 곳을 1월 즈음에 인터넷 뷰만을 보고 중개업자와 답사한 그곳은 농로 좌우로 경사진 돌밭과 개울로 떨어진 가파른 낭떠러지 길이었다. 현지인인 그도 눈길의 농로를 조심조심 운전해갔다. 산길 깊숙이 눈 덮인 땅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 이곳에서 살아 낼 수 있을까.?'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계약해버렸다.

무모한 도전 정신 그 자체였다. 처음 선택지는 신동읍 운치리였으나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최종적으로 이곳 매화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20여 가구도 있었고 집 앞에 마을버스 종점도 있어 통학의 조건도 충분했는데 인연이 닿으려니. 결정 후 3월부터 인천과 정선을 오가며 임시 거처를 준비했다. 업자 도움을 받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발품도 팔고 직접 하였다. 첫 삽에 자루가 부러지고 돌밭에 삽질이 되지 않아 그 길로 인천에서 포크레인까지 구매하여 주변 정리도 하고, 부지런히 완성해 나갔다. 그렇게 8월에 정선군민이 되었다.

고생길의 시작이었다. 첫 난관은 마을 사람들이 물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겨울 가뭄을 타는 동네라 물이 모자란다고 집 앞을 지나가는 지하수 관을 연결하지 못하게 서명까지 하며 단체행동까지 했다. 그 물은 우리 동네에서 연결한 물인데도, 공무원과 관공서에서 조정도 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개울물에 호수를 연결하여 자연압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그 일로 몇 년 동안 남편은 형식적인 일과 기본적인 경조사 외엔 마을 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이야 이웃이 되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지만 몇 년 동안 우리 집 일에만 집중하였다.

아이들은 도보는 당연히 할 수 없었고, 자전거 통학도 학교까지 내리막길이라 하교 시에는 오르막길을 타고 올 수가 없었다. 운동 삼아 몇 정거장은 걸어 등교하던 인천보다 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남편이 등하교를 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날이 좋으면 원동기 면허를 따고 온 아들놈이 동생을 태우고 통학을 하였지만, 늦여름부터 찬 기운에 더는 통학이 되지 않았다. 집안일에 애들 통학까지 남편은 지쳐갔고, 애들과 나보다 더 적응하지 못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난 집안 살림도 많이 부족한데 힘든 집일은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모든 걸 혼자서 해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급기야 해보지 못한 일에 스트레스와 피곤이 겹쳐 내가 A형 간염에 걸려 원주병원에 열흘가량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간 수치가 치솟아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었다. 애들 생일도 챙겨주지 못한 해였다. 퇴원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늦은 김장을 입으로만 지시했다. 남편은 욕조에서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고, 딸은 마늘을 까고, 아들은 찧고, 버무리기까지 그렇게 겨울 먹거리를 준비하였다.

두 번째 난관은 혹독한 첫 겨울나기였다. 자연압으로 물이 흐르면 충분히 얼지 않을 거라 오판한 결과가 영하 20도에 폭설까지 내리다 땅속에 묻지도 않은 호스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린 거다. 개울에 가서 물통에 물을 담아 나르고 보일러실에 연결해둔 큰 통에 물을 붓고, 보일러로 데우면 샤워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 물을 채워 넣고, 그렇게 겨울을 바쁘게 보내야 했다. 눈이 오면 군대도 아니고 쉬지 않고 마당도 쓸어야 했고, 조금 날이 풀리면 산에 오르며 나무를 해야 했다. 쓰러진 나무를 남편이 토막 내면 아들은 아래로 던지고 딸과 나는 차에 실어야 했다. 네 식구가 난방에 샤워까지 하려니 자주 나무를 해야 했다. 웬만한 성인 남성의 허벅지 굵기는 되어야 불이 오래갔다. 급기야 지어진 집은 여름 장마 기간 몇 번이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벼락이나 폭설엔 전화가 불통되는 일은 자주 반복되었다. 더 최악은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장 신고도 인터넷 도중 인증도 핸드폰 되는 곳까지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신고도 하고, 인증번호도 집 전화로 하면 딸이 입력하면서 엄청 불편하게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가끔 하교 시간이 변동될 때면 집안에서 전화기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들보다 딸이 울면서 투덜 대곤 했다. 전기나 전화는 다음 해에 새집을 짓고 거의 완벽하게 해결되었지만, 핸드폰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개통이 되었다. 그것도 남편이 시시때때로 통신사에 진정을 넣고, 계속 민원을 넣은 결과였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아이들은 대도시로 나가 진학하였고, 절실함은 시기를 맞추지 못하였다. 아이들에게 또래 소통의 도구였고, 우리 산골에선 더 절박함이었는데 개인이 통신사에 요청하여 싸우기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도 통신의 문제가 있는 곳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귀농 · 귀촌하는 분들에는 군에서 나서서 지원해주면 한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큰 문제를 접어두면 아이들은 학교생활이며, 산골생활을 즐겁게 보냈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을까? 요즘 집에도 잘 없는 장독대가 학교 급식실 옆에 턱 하니 자리하고 있는걸. 식자재도 최고급을 사용하였고, 급식직원도 학부모나 이웃의 아주머니이니 엄마의 정성으로 차려지는 건 기본이었다. 메추리알 장조림만 몇 개씩 먹어본 아이들이 달걀 장조림에 충격을 받은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한다. 인천에선 아이들도 많고, 비용 문제도 있으니 그랬겠지만, 대접받는 느낌으로 밥을 먹었다고 했다. 가끔 테이블에 버너를 놓고 몇 명씩 둘러앉아 찌개를 끓여 먹는 메뉴도 많았다고 한다.

전교생이 한 학년당 10명 남짓이었으니 같이 둘러앉아 엄마나 이모님이 챙겨주는 음식에 선생님들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았을까? 딸은 현실 속의 상황에 늘 즐겁게 생활했던 학교생활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한다. 군의 아낌없는 지원에 홍콩, 일본 등을 졸업 여행, 체험학습으로 다녀온 이야기는 대학이나 지금의 직장생활에서도 모두 부러워하는 학교생활이라는 것이다.

고3 수능 후 남은 시간 동안의 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운전면허증도 두 아이가 다 취득하였다. 그렇게 학교생활을 마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전학 후 6개월은 남편이 통학을 시켰지만 새 학기부터 아침은 내가 등교를 시키고, 하교는 동네 자율 방범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고해주셨다. 하교만이라도 도와주는데 우리 부부에겐 큰 힘이 되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두 아이가 졸업 후 학교는 공학으로 통합되었고, 깨끗이 리모델링 된 건물에서 수업받고, 학교 통학버스도 생긴 것 같았다.

그땐 택배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선생님들의 배려하에 행정실에 맡겨두면 아이들이 하교 시에 찾아오곤 했다. 사소한 마음 씀씀이에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참 감사했다.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자비로 생일 케이크를 챙겨주고, 축하해주셨던 스승님의 사랑을 아이들은 또다시 받을 수 있을까? 성인이 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길 바란다.

이곳은 여름과 겨울만 존재한다. 그것도 겨울이 반년 이상인 것 같다. 봄,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고 긴긴 겨울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베짱이처럼 굶어 죽는다. 아직도 동네 할머니들이 보시면 우스운 소꿉놀이 같은 농사일이지만 잘은 못해도 천천히 해나가니까 작물 자라는 게 보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게 된다. 이젠 제법 농사 재미도 느낄 줄 안다.

첫해에 고추를 따다가 한번 된통 당한 일이 있었다. 도시분들은 대부분 비가 내리는 것만 봤지, 실제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한여름 땡볕에서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너머 이웃집 근처가 갑자기 먹구름이 뒤덮이는 걸 본 순간 소나기를 직감했다. 요것만 요기까지만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엔 누군가 내 머리 위에서 양동이로 쏟아부은 것처럼 머리 위 모자부터 속옷은 물론 장화까지 물로 철퍼덕 물벼락을 맞았다. 고추 자루를 끌고 현관 앞에 내던지고 앉아 있으니 웃음도 나고, 비 맞은 꼴에 속상해 눈물도 나더라 '나 방금 뭐 했지?'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지. 이렇게 훅 지나갈 줄 알았겠어. 나 자연을 너무 우습게 본 거야.!

그 시각 우리 딸도 친구들과 두위봉 단곡계곡 인공폭포 옆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더랬다. '어 먹구름이네! 이것까지만 먹고 접자' 영락없이 나처럼 비 님에게 당했다. 죄다 젖어 집에 와선 "엄마, 나 저기서 비가 오는걸. 봤어. 훅 지나가더라", "나도 나도" 둘은 한참을 배꼽 잡고 웃었다. 딸과 나눈 또 하나의 추억이다. 그 속에서 자연을 쉽게 보지 말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

우리가 이사 오고 6년이 지난 후 마을엔 한집 두집 이사를 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 개울 건너편에 전라도에 살다 온 부부가 집을 지었다. 장비를 부리는 사람이라 그런가, 물론 현장 경험도 많았겠지만 억척으로 둘이서 집을 지었다. 밭도 일구고 집 앞길도 넓히고 농사도 시작부터 크게 하는데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 다르구나 했다. 전라도의 그 넓은 평야에서 농사짓는 것을 봐서인지 틈만 나면 장비로 밭에 돌을 골라내고, 옥토를 만드는데 열을 올렸다. 남편은 가끔 말렸다. 강원도는 돌이 있어야 한다.

돌 덕에 가뭄도 덜 타고 태풍이나 장마에 쉽게 작물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충고를 해줘도 돌을 그렇게 골라내고 고추 농사도 대농으로 짓더니만 3년 만에 노모 핑계를 대고 다시 전라도로 이사 가버렸다. 주인이 바뀌고 딱 6개월 만이다. 긴 장마 끝에 산 아래 밭이 산사태로 하천까지

덮어버렸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쩜 이렇게 짧고 단순하게 할까? 사고만 치고 가버렸다. 사유지라 군에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흙은 하천으로 유실될 거고, 하천 정비로 시간과 재정까지 낭비하게 생겼다. 몇 집이 이사 오고, 또 이사하고 처음부터 무턱대고 정부터 주지 않는다. 농막은 1년마다 주인이 바뀌고, 집을 짓고도 3년, 6년을 사다가 가버리니 우리 가족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를 쳐다보던 마을주민들의 행동과 눈빛을 나도 닮아가고 있다.

나는 가을을 타는 편인데, 이곳의 가을 풍경은 정말 을씨년스럽다. 추수를 끝낸 밭은 누렇게 마른 잡초며, 푸른 빛의 나무들도 회색빛으로 변한다. 산등성이의 소나무가 있긴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흑백 세상이다. 심란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딱 1달에서 1달 반만 참으면 첫눈과 함께 포근한 흰색의 솜털 같은 세상이 뒤덮인다. 길도 위험하고, 미끄럽고 통행에 불편하지만, 가을보다 훨씬 안정감을 준다. 10년 정도 살아내니 가을을 쉽게 넘기는 요령이 생겼다. 추수며 겨울 채비며 김장에 아주 미친 듯이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눈 쓰랴 나무하랴 겨울도 아주 바빴다. 이젠 애들도 다 나가고 둘이서 알콩달콩 토닥토닥 잘 지낸다. 밤새 눈 온 아침, 현관 앞 테라스에 찍힌 짐승의 발자국. 누군지 모른다. 아랫동네서 올라온 개인지, 고양이인지, 울 집을 평소 드나드는 쥐인 지, 산에서 내려온 오소리인지, 너구리인가. 그 모르는 정체 때문에 첨엔 가슴이 철렁했더랬다. 그 낯선 존재는 내 삶의 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생각에 늘 조심 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먼저 다니던 길이었고, 뛰어놀던 놀이터였을 것이다. 내가 침략자구나. 허락받지 않고 양해 구하지 않고, 이 숲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같이 살아야 한다. 빌려줬으니 감사해하며. 지난 시간 동안 위협적인 동물은 없었다. 산골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더 무섭다. 차가 아니면 밤늦게 통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짐승이라도 내려올라치면 우리 집 개들이 쉬지 않고 짖어대는 놈들이라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고라니, 멧돼지가 예민한 시기에만 산속에서 조심하면 된다. 이사 온 다음 해에 진돗개와 삽살개를 한 마리씩 입양하여 들이며, 산이며 같이 다니고 산책도 함께 했는데 어느 겨울날 진돗개는 올무에 걸려 1주일 만에 찾아왔다. 삽살개 봄이가 우리를 이끌었고 구해올 수 있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탈출하려 했는지 와이어 줄은 목의 살을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였다. 우리가 바르는 연고 항생제, 딸의 지극 정성 보살핌으로 살아났다.

주인보다 항상 한걸음 뒤에서 따르던 영리한 봄이는 다음해 봄, 어디서 독극물을 먹었는지 입에 거품을 물로 쓰러졌다. 그 조금 전에도 아들의 현관문 소리에 뛰어왔던 그놈은 30분 뒤 남편이 발견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에 가족이 뛰어나가 울면서 보냈다. 적응 힘든 산골 살에서 어디서든 달려와 주고, 꼬리 흔들며 우리를 지켜줬는데. 먹성 좋은 우리 딸이 학교 급식이나 간식에서 조금씩 남겨와 챙겨준 놈이었는데 딸은 몇 날 며칠을 울었다. 남편도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해마다 보신탕도 먹으면서 자라 개는 식용으로 생각했던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지만 “살다가 내 평생 개 죽었다고 울기는 처음이었다.”라면서 많이 슬퍼했다. 사람은 참 나쁜 짓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남편은 이제 진돗개를 키우지 않는다. 주인에게 충성해서 좋지만 다른 사람에겐 너무 포악하고, 공격적이라 그렇단다. 봄이는 새끼를 일곱 낳고 갔다. 모두 입양 보내고 제일 어미랑 비슷한 놈이 남아 우리를 지켜준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개들을 풀어주었는데 이사 온 몇 집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던 후, 산책하는 일이 아니면 큰 개들은 좀처럼 풀어주지 않는다. 아, 또 눈물 난다.

우리 집은 울타리가 없다. 당연히 대문도 없고, 심어 놓은 나무가 울타리를 대신하고 개들이 초인종 노릇을 한다. 몇 년 동안 우리만 살았고, 주변에 이웃도 멀리 떨어져 있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두었다. 참 이상하게도 요즘 이사 오는 사람들은 농막에 지내면서 울타리에, 대문에 사방 카메라를 먼저 설치하고 본다. 그냥 남편이랑 나는 웃는다. 거리감이 느껴졌던 마을주민들도 마지못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이젠 마을 운영위원이 된 남편은 마을 일도 도맡아 하고, 마을 대소사에는 바쁘지 않은 이상 꼭 참석하려 노력한다.

나는 혼자 잘 놀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마을의 기본적인 행사만 참석해도 마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서 나름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나 같은 성격도 잘 지내고 있으니 성격 좋은 다른 이들이 더 잘해 나갈 거다.

이사 후 다음에 새집을 짓고 인천에 계시던 세 분의 어른도 우리 집으로 거처를 다 옮기셨다. 아흔을 넘어 이 산골에 와서 2년을 산바람 좋게 잘 맞으시다 가셨고, 뇌경색 환자셨던 아버님은 집 주변 돌쌓기로 밭 정리를 몇 년이나 해주고 가셨다. 그 덕에 아버님은 더 악화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 가셨다. 어머니는 병원이며 교회 때문에 큰아들 옆에 가셔서 사신다.

많은 일이 있었고, 10년을 잘 이겨내고 왔다.

다시 봄이 온다. 꽃도 피고 산나물도 다시 올라오고 1년 농사 준비도 해야 한다.

바쁜 봄이 가고 잘 자라는 여름이 오고, 열대야 없는 최고의 휴가지 우리 집에 가끔 사람들도 들를 것이다.

추수하는 가을이 오고, 그걸로 겨울을 또 잘 지내겠지. 내가 뿌리고 키워 메주도 만들고 간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김장 100포기까지 (물론 포기가 작지만) 완벽한 자급자족 농부가 된 내가. 우리 남편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정선사랑상

2018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로 귀촌한 이규용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2018년 고양시에서 북평면으로 귀촌한 이규용입니다. 귀촌하기 전 직업은 주부이며, 현재는 솔돌 정보화 마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새 차가워진 방의 공기에 이불에서 나오기 싫은 겨울. 카디건을 걸쳐 입고 강아지를 안고 침대에서 내려와 주방으로 가 커피 한잔을 내리고, 등 뒤로 비치는 햇빛을 따사로이 받으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신다. 하루의 첫 시작이 늘 같은 이 생활. 하지만, 2년 전의 아침과는 사뭇 다르다. 남편은 오랜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늘 예민해져 있었고, 늘 성격이 드러났다. 아이 책상이 어질러져 있는 것조차 용납을 못 했고, 밥을 먹다가 밥풀 하나 흘려도 혼이 나야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툼이 있었다. 불쌍한 아이를 위해 투사처럼 남편과 소리높여 싸우고 남편의 집 밖에서의 생활 또한 감시해야 했다.

남편은 큰 기업의 골프장 시설관리 팀장이었고, 급여도 연봉 계약 금액이 상당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아 사고 싶은 것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오랜 회사생활에 염증이 생겨 밤에 잠을 못 잤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자다 보면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부터 남편은 고심했던 것 같았다. 돌연 여행을 제안했고, 둘은 여행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왠지 여행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뭔가 생각에 잠겨 집중을 못 하는 남편의 모습에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호텔 라운지에서 차 한 잔을 제안하여 3층 정도 높이의 파노라마 유리창 앞에 앉아 홍차를 마셨다. 푸른 바다가 물들기 시작하고 태양이 수평선으로 떨어질 찰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고스란히 담아 간직하는 그 찰나에 남편이 말을 했다.

"나. 사표 썼어."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지는 태양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그토록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향긋한 홍차를 마시는 이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겠지. 저 아름다운 태양과 사표라니.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나 또한 침묵으로 석양을 보았다. 그날 저녁 나는 많이 아팠다.

몸살이 걸린 건지 아니면 긴장을 했었는지 긴장이 풀어져 몸이 아팠는지는 모르겠다. 휴양지다 보니 약도 없었고 그냥 밤새 앓았다. 아침 발코니에 서서 푸른 바다를 보니 마음은 개운했다.

'그래. 어차피 각오했었잖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은 자신의 직종을 살려 설비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여건이 맞질 않았고, 나 또한 사고 후 심하게 다쳐 수술해야 했기에 이래저래 바쁘게 보냈다.

MRI 촬영을 하니 인대가 찢어지고 무릎연골이 파열되었고, 大자 주사기로 물을 빼내니 노란 물이 주사 두 개에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그리고 나선 결정을 내렸다. 귀촌하기로. 처음엔 무척 반대했던 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완강하던 생각이 바뀌고, 많은 대화를 통해 결정했다. 은퇴 후 살려고 마련해둔 정선 땅으로 답사를 왔고, 무턱대고 집부터 짓기 위해 건축업자를 만나고 설계하고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졌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던 건 아니었다. 연고지도 아니고, 지인조차 없는 오지에 떨어진 기분이 든 건 사실이었다. 봄이 오기 전부터 시작된 공사가 드디어 6월에 완공이 되었다.

태풍이 오는 날 이사를 왔고, 이삿짐을 정리했고, 남편은 적은 월급이나마 직장을 얻게 되어 출근하게 되었다. 이사 다음 날 남편이 출근 후 짐을 정리하다 덩그러니 혼자 남고, 정리도 안 되어 어수선한 짐들이 쌓은 광경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했다. 밤이 되면 너무 캄캄하고, 적막하고, 풀벌레 울음소리만 들리는 이런 곳이 너무 싫었다. 도시를 한 번도 벗어나 살아본 적 없는 나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서울에서 태어나 큰 도시에서만 살아왔던 터라 밤이 되면 별을 본 게 아니라 야경을 보며 컸고, 문밖에 나서면 마트와 옷가게 등등 즐비한 상점이 많은 곳에 살다 어둠만이 존재하는듯한 시골에서 하룻밤을 자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성통곡을 했다. 작은 말티즈 한 마리를 껴안고 엉엉 우니 강아지도 같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하얀 털이 축축해지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듬직하게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었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니 나의 부은 눈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정선읍으로 바람을 쐬러 다녀오자고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정선읍이 눈에 들어오겠나. 내 눈엔 시골 시골로밖에 안보였다. 다녀오는 길에 남편이 차를 사줘야겠다고 했다. 시큰둥했지만, 남편은 나 몰래 계속 차를 찾아보았고, 이사 한 달 만에 차를 사주었다. 그리고 차량 연수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정선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게 말이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동안 시장도 가고 정선의 풍경과 정선의 관광지를 다녔다. 마음에 담아두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혼자 다니다 보니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었고, 다니다 보니 정선이 참 아름답다는 걸 느꼈다. 장이 열릴 때마다 찾아갔고, 아리랑 제도 신랑 손잡고 맘껏 즐겼다. 더없이 좋은 나날이 이어졌다. 찌는듯한 더운 여름 나지이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어느덧 선선해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왔다.

나는 집에 이름을 붙였다. 주소를 신고할 때 산들바람을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붙여졌다. 그리고는 정선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여름날 이사를 왔기에 먹을 것이 텃밭에 하나도 없어서 참 불행해 보였다. 휑한 모래사장처럼 허전하기 그지없는 땅이었다. 다행히도 아랫집 언니의 도움으로 호박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그해 첫 여름엔 호박 부침개를 정말 많이 먹었다.

그렇게 매일 호박 부침개를 먹으며 고마움을 느꼈고, 그 언니의 호의 덕분에 나는 타인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했다. 전원주택 택지라 해도 집을 지은 집이 몇 채 안 되어 빈 땅인데, 어머님들이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았다. 더운 여름에 냉커피라도 타드려야겠다 싶어서 풀숲을 뚫고 다가가 커피도 타드리고 또 다른 날은 시원한 물도 갖다 드리고 음료도 드리곤 했다. 항상 까르르 웃으며 다가갔다. 그게 어머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갔다. 어머님들은 하나둘씩 집 앞에 땅콩 씨앗이며 꽃씨랑 꽃모종을 가져다주셨고, 그때마다 어머님들 안아드리며 “아이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어?” 하면서 가실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 뻥튀기라도 과자라도 한 봉지 드렸다.

어머님들은 나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셨다. 보는 앞에서 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전하셨다. 외지인 같지 않게 상냥하고 정이 깊다고 말씀하셨다. 후에 친한 언니가 이렇게 말해줬다.

“야 내가 어디 가면 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성격 좋다고 칭찬하더라” 그 말을 듣고 어머님들의 입김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

귀촌하시는 분들 외지인들이라 마을에서 배척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신다. 하지만, 배척은 외지인들이 하는 게 아닐까? 외지인들이라고 외지인처럼 굴고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비싼 돈 들여 집 짓고 산다고 시골 허름한 집에 사시고, 트럭 타고 다닌다고 오히려 역으로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일이란 작은 것 하나로도 마음이 틀어지기 마련이니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려.라는 논리는 세상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만 조금이나마 마음을 연다면 사람의 마음엔 정이 있기에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내 집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마을의 아름다움

일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이사 후, 첫 가을이 되어 갈 무렵부터는 우리도 배추라는 걸 심을 수 있었다. 농사를 모르니 네이버에 검색해서 배추 심는 법, 대파 심는 법부터 여러 가지 검색하여 농사를 지었고, 물주는 법 모든 다 검색했다. 심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니 이웃이 심으면 시장 가서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한마디로 따라쟁이처럼 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었을까 남편은 잘 웃었다.

직장을 다니며 웃지 않고, 늘 짜증 섞인 채로 살던 남편이었는데,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과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남편과 결혼하며 감추어져 있었던 내 모습, 30년을 직장생활을 하며 감추어졌던 남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상냥한 사람이었다. 참을성 없이 버럭 화내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훗날 이야기하지만, 귀촌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였다고.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카페촌을 지나가며 나중에 저렇게 예쁜 집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한마디 던진 나의 말을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집 지을만한 돈이 마련되니 선물하고 싶었다고 나는 우스갯소리로 "미쳤구나?"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다.

직장을 다니며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만 보여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사실 참 싫었다. 이혼도 몇 번씩이나 하려고 했던 터였다. 그러나, 귀촌 후 거의 남편과 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될까? 나로서는 남편이 평생 가는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정선에 우리 부부가 맞춰 살다 보니 시골은 이제 고향 같은 곳이 되었고, 봄이면 정성껏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작물을 심고,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차를 한잔 마시고, 여름이면 그야말로 벌레와의 전쟁 풀과의 전쟁이지만 실록이 푸른 계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붉게 물든 낙엽을 보며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귤을 까먹는다.

여름 아침이면 새소리로 아침을 깨고, 겨울이면 닭 울음소리에 아침을 깬다. 이제 캄캄한 밤도 싫지 않다.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산책도 하고 삶의 여유를 부리며 산다. 정선읍에 저녁에 나갈 요량으로 운전하다 보면 밤 운전도 즐겁고, 막상 가보면 처음의 시골이란 느낌은 온데간데없고 정선의 야경만으로도 "오~~~읍내라고 불야성이구먼" 하며 웃으며 아들과 나가기도 한다.

정선으로 이사 온 후 또 한 가지의 변화는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직장도 다니게 되었다. 정선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했고, 그곳에서 소개해주셔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다. 아직 젊기에 직장을 다니며 소소한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간다.

우리 부부는 가끔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그전의 삶은 행복했었나? 행복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행복이란 건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 어느 시간에 내가 느꼈던 행복이란 것과 지금의 삶은 일맥상통한다. 그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귀촌한 지금은 그때의 행복 위에 한 칸 더 얹어진 행복이니까.

난 당연히 남편에게 말한다. "행복해"라고 남편도 말한다 "나도 행복해"라고 말이다.

집을 짓기 전 고민에 빠진 적 있다. 어떤 집을 지을까? 경제 여건을 생각해서 저렴한 집?
아니면 잘 지은 집? 그런 고민 끝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예쁜 그릇에 담아 먹듯이 소중한 내 삶인데 아무 그릇에 담을 수 없잖아. 내 삶을 닮는 그릇이야. 허투루 안 지을 거야"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우린 예쁜 집에 농사도 짓고, 맑은 공기와 맑은 하늘 좋은 사람들도 만나며 산다. 도시 촌뜨기가 시골에 이사 와서 소도 보고 가을 들판의 황금 들녘도 보고 여름이면 강에 내려가 다슬기도 잡아 국도 끓여 먹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간다. 코끝이 찡한 겨울 아침, 주방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이 부시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물을 컵에 따른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뜨거운 커피 한 모금 호호 불어 마신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 정선은 보고 싶은 정선이고, 그리운 고향 같은 곳이다.

귀촌이란 게 그렇다. 정붙이고 살면 고향이고 정붙이고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니 더없이 좋은 게 귀촌이다.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고 그러면 도시의 이웃보다 더 좋은 이웃을 만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정선사랑상

2010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로 귀촌한 박용남님의 이야기입니다

떠날 용기

2010년 인천에서 강원도 정선 행정 구역상으론 운치리, 생활권으론 가수리로 귀촌한 박용남입니다. 귀촌 전에도, 지금도 물리치료사로서 대학 강의와 건강 관련 평생교육원 강의 및 물리치료를 하는 10년 차 귀촌인입니다.

시끌시끌한 윗집의 소리도, 막연한 전원생활도, 텃밭을 일구겠다는 마음도 없었다. 젊은 한때를

보내며 일상에 지치고 치이며 생업에 쫓기는 신세도 아니었다. 봄이면 파릇한 새싹과 씨앗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이로움도, 뜨거운 햇빛과 검게 그을린 얼굴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의 여름도 아니었다. 나뭇잎 떨어지는 가을이면 회한에 젖어 마르고 푸석한 인생이 부질없음을 슬퍼서도 아니었다.

벌거벗은 능선을 바라보고 눈 덮인 적막한 풍경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다. 사계절의 경이로움과 나무와 꽃들, 새 짓는 소리에 내가 자연 일부라는 거창한 생각도 없었다.

그저, 도시를 걷다 보면 쓸어 놓은 낙엽을 태우는 냄새가 좋았다. 도시 생활 외 딱히 시골이라면 전라도에 계신 고모 집의 아궁이가 전부였고 그것도 명절 때 잠깐일 뿐이었다. 어려서 기억 내내 가시지 않는 꿈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막연한 향수에 언제고 시골로 내려가야 지를 되뇌던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한 시골행은 아니다. 언제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매운 눈을 비비며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활짝 웃을 거라 그렸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생활이며, 야간엔 대학원도 가야 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 시골을 잠시 잊곤 했지만, 여전히 시골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낙엽 같은 마른 하루를 보낸 밤이면 소주 한잔 걸치고 지친 잠을 자야 했다. 대학원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동선을 탔다. 경부선이나 호남선은 왠지 낯설어 꺼려지는 길이다. 학교 가는 길이 영동선이라는 습관도 있었겠지만, 인천에서 강원도 영동선이 편했다. 제천, 영월, 정선, 태백, 강릉을 매주 가다시피 다녔다.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던 터라 지금보다 훨씬 느린 길이었지만, 꾸불꾸불한 국도에 스치는 부동산이 있으면 멈춰 한, 두 군데씩 구경했다. 남향이 어떻고, 지적도를 떼서 길이, 땅의 모양이 정방향이 여하고 뒤에 산이 앞에는 물이 있는 배산임수가 좋다는 것도 모른 채 내 맘대로 서서 집을 허물었다 짓고 그 안에 느긋한 발걸음만을 생각했다.

일이 있을 때만 빼고 거의 매주 그렇게 인천에서 강원도로, 다시 인천으로 달렸다. 자주 가다 보니 익숙해진다. 부동산 사장님도 때때로 전화 주시고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꼭 그곳에 사는 양 친근해지기까지 했다.

"이곳은 좀 비싼데" 하며 숨겨 둔 곳처럼, 간 곳이 지금 내가 사는 가수리다. 행정구역상 운치리, 생활권은 가수리다. 거칠게 솟은 산을 사이에 두고 강줄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들어갔다.

그 절경에 눈을 뗄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치밀어 올라 올 정도다. 그렇게 도착한 곳, 1,200평의 밭. 경사가 져 있어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보니, 앞은 강 건너 완만한 능선의 야산과 그 옆과 뒤로 뼁대가 둘러쳐진 산세에 감탄이 절로 난다.

'전라도 깽깽이, 강원도 감자 바우'라 했나. 산이 많고 산세가 험하여 감자 바위라 했다지만, 겉과 달리 아늑하기 그지없다. 내 땅인 양 덥석 주저앉아 '이곳이다.' 옅은 미소와 함께 하염없이 바라만 봤다.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돈이 부족하여 600평을 쪼개어 덥석 계약을 마치고 나니, 그다음이 현실로 급해진다. 금방이라도 내려 가야가 할 듯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뭐 먹고 살지, 문화생활은 관심도 없었지만, 병원은?, 도시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걸쳐놓고 시골행을 선택해야 하나, 살아보고 그때 시골로 옮겨 갈까? 너무 먼데!, 결혼도 못 하고 시골에서 홀로 살겠구나!" 싶은 생각들로 한동안 밤잠을 뒤척였다. 무턱대고 저질러진 일임엔 틀림없다.

계약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일제히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는 말들을 쏘아낸다. "결혼도 안 한 젊은 놈이 그 시골에 가서 뭐 하게, 못하나 박지 못하는 놈이 그 험한 시골 생활을 어찌하려는지, 집은 뭔 돈으로 짓고 생활은 어떻게 할래, 살아봐라. 이놈아 네 생각처럼 되는지!" 등 온갖 핀잔만을 들어야 했다. 용기는 바닥을 치고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에 가족들과 만남도 피하게 됐을 정도였다.

아마도 귀농 · 귀촌을 고민하는 걱정이 나와 더러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수록 오기가 생긴다. 꺾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꿈꾸는 것을 보여 주리라. 그때 가서 정말 옳은 선택과 결정이었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그렇게 저질러진 후 3년째 되던 해, 집짓기를 시작했다. "뭘 아나! 못하나 못 박는 놈이!" 소개, 소개 끝에 지어진 집, 바쁘다는 핑계로 매주 내려오지도 못하고 두세 번 본 것으로 뚝딱 집이 지어졌다. 지어졌다 하기에는 정성은 없었다. 말 그대로 비바람 피하면 그만일 정도의 그냥 집이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눈탱이' 맞았다고. 네! '눈탱이' 엄청나게 맞고 마흔도 안 된

어중간한 놈이 시골에 왔습니다. 귀농 · 귀촌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가 집짓기와 살 집이 아닌가 싶다. '눈탱이' 맞지 않도록 원주민과 함께 상의 해보세요. 저처럼은 그리 '눈탱이' 맞지 않으실 겁니다. 집을 짓고 한동안은 도시 생활을 병행하며 지내다, 2010년이 돼서야 모든 것을 정리하고 꿈만 같은 전원생활?, 시골 생활을 시작했다.

지인들의 방문들은 좋았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와 걱정은 가족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직은 이런 곳에 들어올 때가 아니다. 도시, 사회생활을 하고 은퇴쯤 해서 들어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충고들을 잊지 않고 내뱉는다. 그럴 때마다 '다 늙어빠져 어떻게 살라!'고 속으로 참으며 겉으로는 "네, 네" 한다.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전원생활을 말한다. 도시의 삶은 노인의 도움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이 낫다 한다. 도시는 노년을 구분하지만, 자연인 시골은 노소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생활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다르다.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자식들과 가깝게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무작정 경치가 좋다 하여 시골을 선택할 일은 아니다. 또 늙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며, '병원 가까운 게 최고다!'라는 말이 괜히 있지는 않겠다.

전원생활은 의외로 할 일이 많다. 노인에게 근면, 정성, 사려 깊은 배려, 열정 등이 있어 전원생활이 이상적일 거라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뒤늦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현실은 익숙한 도시로의 회귀가 맞을지 모르겠다. 은퇴하고 난 뒤 늦는 건 아니지만 개고생만 하다가 만족감보다는 일 년에 한두 차례 휴가지가 돼버리는 경우가 전원생활의 모습이라면 굳이 시골에 내려올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내려와 3개월 넘게 물 없이 지냈다. 다 만들어진 마을에 숟가락 얹는 듯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마을에선 물을 주지 않아 도통 생활하기가 어려웠다. 가을쯤 집 공사가 끝나고 물 얘기가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탐색 차?, 보는 사람 없지만, 시골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안다. 누가 왔고 뭘 하는지, 마치 독수리처럼 내려다보는 것 같다. 집 구경과 더불어 물 얘기가 묻히듯 들려왔지만, "뭐 사는데 물 안 주겠어!" 했다.

주변의 눈치 볼 것 없고, 내 멋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천지 물 안 주는 마을 있겠어!" 했다. 있더라! 해마다 물 회의라는 것을 통해 물 관리며 노고와 고생을 보답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물 없이 일 개월을 보냈고 '불합리고, 이상하고, 완전히 웃기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들의 행태에 내심 할 소리는 '해야겠다!' 마음먹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관례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전혀 다른 상식과 관습, 속을 알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람들 온갖 비효율과 불합리가 가득한 사회가 바로 시골이 아닌가 싶었다.

마을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물을 주기로 했다. 그렇지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래야지. 내심 '다행이다!' 했다.

문제는 물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다. O백만 원! 적지 않은 돈에 고민스러웠다. 아예 땅을 파, 관정을 하면 마을 사람과 등지는 건데, 복잡해졌지만, 함께 하고자 O백만 원을 내기로 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엄동설한의 언 땅은 바로 물을 주지 않는다. 봄이 오고 포크레인 바가지가 땅에 파야만 비로소 물을 얻을 수 있다. 지금 1월, 3월쯤 돼서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로부터 2개월 넘게 물 없이 지내야 했다. 씻는 것은 둘째고 밥이며, 빨래며, 화장실은 허허벌판 매서운 바람에 엉덩이를 까야 했다. 집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닌가 싶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지금 와 드는 생각이지만 마을 사람도 3개월 이상 물 없이 지낸 분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돌이켜보면, 나만큼이나 이 마을에 첫 외지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에게도 적지 않은 적개심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또 삶의 기반을 잡은 사회에 얹혀살려면 내가 속했던 사회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했다. 나의 상식과 거리가 먼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여도, 어느 사회건 두 팔 벌려 먼저 반기지는 않을 것 같다. 하물며, 일언반구 없이 떡하니 돈이 있다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돈벌이 되는 작물로 엄청난 수학을 했어도 나 홀로 고고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시골이 아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정말 혼자다. 나름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사람과의 접촉 없는 첩첩산중의 생활이다. 시골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사람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처한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 시골 전원생활이면 굳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것도 없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비하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정작 시골에 살고자 하는 우리는 도망가듯 숨듯 한마음도 아닐 것이고 사람을 피하려는 은둔형도 아니라면, 그들과 '함께'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아닌 외지인인 나부터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 시골의 인심과 인정이 예전만 못하다 타박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맞다.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르고 '뭐가 예뻐' 반기겠는가! 쉽진 않다. 그것도 혼자서 마을주민 모두에게 마음을 열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참 시골, 전원생활 '못 해 먹겠다!' 하겠지만, 나처럼만 하지 않으면 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제재도 없는 괘씸죄만 안 걸리면 된다. 도시건 시골이건 간에 씻기

어려운 불변의 죄가 괘씸죄다. 두고두고 욕먹을 죄다. 그 죄의 벌을 아직도 받는 듯하지만, 나는 이 죄를 만회해 보고자 아직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보대끼고 있고, 그러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은 어쩌면 무모한 계획으로 인한 어설픈 과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가졌던 보다 큰 꿈은 차근차근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나는 물리치료사다. 아픈 사람들의 여기저기를 만져주고 아프지 말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치료사라 생각한다. 무릎, 허리,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는 시골에선 나 같은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서 '뭐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은 사실 없다. 동료들, 지도교수님의 걱정과 측은한 마음으로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벌써 시골이 뭐냐, 젊은 사람이 도시에서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지!, 좀 더 사회생활하고 정년쯤 내려와야지, 세상과 등지려 하느냐' 하며 떠벌릴 때마다 난 말한다. 사람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라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즐거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형식과 겉치레에 기계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나에겐 불편했다. 내가 편하면 당신에게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꼭 여기여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꼭 도시여야 할 이유 또한 없다. 이곳 가수리에서 소소하게 만나는 이들과 호롱불 밝혀 놓고 두런두런 진솔히 대하고 싶었다.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살아가는 환경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나 싶다. 암에 걸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산으로 들어갔더니 암이 완치됐다는 소릴 듣곤 한다. 암은 반복적 일상에서 같은 환경에서 비롯된 생활 병이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여 더는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암이 발생한다. 하루에도 10만 개의 암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생긴다고 한다. 깨알만 한 크기가 어느새 땅콩만 하게 커지는 게 암이다.

이렇게까지 암세포가 커졌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한계를 뜻한다.

약과 방사선, 병원 치료가 더해졌을 뿐 암의 원인이었던 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낫는다는 것은 어쩌면 광기 서린 생각일지 모르겠다. 같은 것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이 광기의 어원이다. 환경이 바뀌고 그에 따른 생활이 변화하면서 몸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아픈 몸이라면 먼저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처치 방법이다.

시골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가? 시골 사람도 암에 걸린다. 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누구나 몸에 이상을 겪게 마련이다. 시골에 왔다고 공기 좋은 곳에서 오염 없는 음식을 먹었다고 나았다 얘기하기만, 실상은 환경이 바뀐 것이다. 바뀐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과 다른 일상을 맞이하는 몸이기에 그래서 암세포들은 자리하고 적응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곳, 난 그곳을 강원도 정선 가수리로 정했다. 인사말을 반복하는 녹음기처럼 사람과의 만남이 그랬었다.

지금은 찾아 준 이들과 동강 줄기를 따라 걸으며, 때론 아무 말 없이 그저 산과 흐르는 강물만 보아도 서로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물론 탁주 한 사발 찌그리면 더 없이 자연과 녹아들기 좋다. 낯선 곳에서의 식사, 낯선 곳에서의 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외로움', '그리움'이 왜 없겠는가?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는 병삼 씨도 있고 읍에서 식당을 하시는 최 씨 형님과 형수님도 계신다. 얼마 전에는 농가 주택을 지어 여름에만 잠시 만나는 은퇴하신 형님도 계신다. 복 받았다. 귀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쪽을 채워 준 사랑하는 아내도 곁에 있다. 연통에 하얗게 퍼져나가는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밤새 무탈하니, 잘 잤구나! 인사한다.

어스름한 저녁, 불이 켜지지 않으면 뭔 일 있나 궁금해지는 마음이 앞서는 나의 이웃, 벗들이 있다. 시골도 사람 사는 세상이 맞다. 귀촌 이유가 자연환경이 좋아서, 가족 및 친지와 함께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등을 말하지만, 난 사람을 만나고자 여기에 왔다. 스치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는 이들과 사람 냄새 풍기며 토닥거리는 삶을 살고 싶어, 이곳에 떠나 왔다.

정년은 늦다. 시골은 병들고 할 것 없는 사람들이 고려장처럼 버려지는 곳이 아니다. 정년 후 노년은 시골이라는 이미 답습하고 세뇌당하고 학습된 기존의 말들에 '정말 정년 후, 노인이 돼서' 시골에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는 정년과 노후에 대한 만들어진 생각들과 계획이 절대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었다. 몸도 마음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있을 뿐이지 정해진 것은 없다. 틀에 박혀 누군가의 말들을 따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무작정 짊어지고 가는 삶이 답답하지만 그게 편하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 불안하겠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와서 아니, 시골살이 매 순간 더 일찍, 더 젊을 때 용기를 내었더라면 생각한다.

지금의 자리에서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일상의 언저리에 불쑥불쑥 든다면, 혹 '나는 자연인이다.'를 빠짐없이 본다면, 당신은 지금 떠날 마음은 있다. 어찌하겠는가? 또다시 주저앉아 멀리멀리 행복을 미뤄두겠는가? 지지와 응원을 한다. 두 팔 벌려 당신을 안을 외강내유의 강원도 정선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새벽부터 눈이 내린다. 소분 소분 솜뭉치 떨어진다.

뼁대의 위태로움이 넘어져도 푹신하게 도드라진 융단을 깔아 놓았으니 아프지 않겠다.

눈이 그치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병삼 씨와 코피 나도록 눈을 쳐야겠다. 또 자연이 녹아나는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겠지.

정선사랑상

2012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로 귀농한 신진선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여량면으로 귀농한 신진선입니다.
태어난 출생지는 정선군 여량면에서 출생하여 여량면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우 사육을 주로 하였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시골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타향은 특히 서울은 나에게는 낯선 타국과도 같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경기도나 대구 등지에서 3년의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언젠가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겠다는 나의 마음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릉 부근에서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끝으로 고향 정선 여량리로 이사를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왔던 고향은 많이 변해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도 없고, 시골에는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마을 공터는 APT가 들어섰고, 논과 밭은 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었고, 나도 모르게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층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부모님 세대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농촌이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힘들어서 시내로 다시 이사 가려고 몇 번이고 망설였으나, 농촌에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준 것은 농업기술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수원 가꾸는 교육을 받으며 나름대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과도 재배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기타 등등 과수원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담배인삼공사와 계약하여 인삼재배에도 관심을 두게 되어 5년 차 인삼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농 ·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귀농 귀촌을 하면 90% 이상은 다시 또 도시로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촌에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안 했던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언젠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별일 없었는지 안부를 묻고 다가간다면 상대방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그렇게 다가감으로써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시골에도 도회지 못지않게 취미와 오락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먼저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면 발전은 없고, 하루하루가 피곤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지역의 반장 역할을 맡으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새마을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살게 된 원동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이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새마을 행사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행사에도 참여함으로써 군수 표창 및 상장과 상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새마을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마을 정신을 본받으려고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농촌에도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필요한 농자재가 매우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 입학할 때도 장학금을 지급해줍니다. 정선군장학회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자녀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귀농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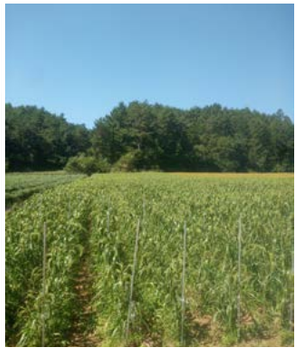
앞으로는 마을의 이장이 되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뒤를 이어 마을 발전에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층에도 귀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만 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시골에서 도전해보는 삶이 어떨까요.

정선사랑상

2017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로 귀농한 박대성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4월 12일 정선군 임계면으로 귀농의 첫발을 디딘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식품 유통 개인사업 30여 년 만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 줄어든 거래처와 일에 대한 의욕 저하로 지쳐 가던 중 불현듯 여기서 이대로 살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농촌 생활을 꿈꾸게 되었고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귀농학교에 입학해서 120여 시간 수업을 받으며 나름대로 귀농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귀농 교육 중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귀농 · 귀촌의 첫 번째 할 일은 “마눌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웃픈 마음이 들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삼시세끼



해결도 문제지만 홀로 늙어 간다는 것은 노년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귀농 · 귀촌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성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귀촌하자는 말에 아내가 흔쾌히 동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강사님께서는 땅 구매할 때 부동산업자의 농간을 조심하라는 당부도 있었고 집 지을 때 너무 크면 관리가 부담이라는 것, 절세방법과 자금 활용법 등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작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선해야 하는 것 등을 들었고 무엇보다 내게 맞는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북 고령, 전북 고창, 충남 부여, 공주, 서산, 예산 등등 시간 날 때마다 전국 곳곳으로 많은 땅을 보러 다니며 같이 공부한 학우들이 먼저 자리 잡고 사는 모습을 둘러보기도 하였는데, 맘에 드는 땅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강원도에 여행 삼아 오게 되었고 운명처럼 지금의 이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과 동떨어져 있고 사람이 살기에 좋다는 750고지에 완만한 경사와 종일 볕이 드는 아늑한 곳. 우리 부부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이곳에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30여 평 비닐하우스를 짓고 집 짓는 두 달 동안 텐트 생활하며 준공 뒤 6월에 무도 심었습니다. 초보 농사꾼다운 실수를 연발하면서 일이 서툴러서 죽을 만큼 힘도 들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일에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없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농한기인 지금은 배드민턴치고 색소폰 배우고 주변 산행을 하며 느긋하게 지냅니다. 저의 글을 다른 분들께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호시우행" 땅을 선택할 때, 집을 지을 때, 호랑이의 눈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보고, 결정했다면 소처럼 뚝심 있게 천 리 길을 가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정선사랑상

2015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로 귀촌한 이재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움직이면 영화요 멈추면 그림이더라"

저는 서울에서 화훼 장식가로 살아가다 2015년 겨울 정선으로 귀촌하였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꽃송이 속에 묻혀 미래지향적인 장식을 하기 위해 늘 공부하고 고민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태협 감아 돌아가는 춤추는 인형처럼 같은 일상 속에 갇혀 지쳐 갈

즈음 저는 어깨에 회근개파열 이라는 진단과 더불어 모든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삶의 질마저 떨어질 무렵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 보자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저는 살 곳을 찾기 위해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금요일마다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오게 된 '정선' 처음 구절리라는 곳을 왔을 때 저는 실컷 울어 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벅찬 감정이 고조되어 울어 버렸는지. 그 후로 1년 동안 집을 짓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선을 알아갔습니다.

손가락 액자 속에 보이는 풍경은 언제자 그림이었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은 천국이었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듯이 저의 시골살이에 빨간 신동이 켜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대화의 소통, 힘들게 약을 복용 하며 지내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꽃차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에 온통 꽃 대궐이 펼쳐져 있는 자연 속 장관. 그래. 내가 유일하게 잘 할 수 있는 꽃과의 일들.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야생화를 공부하고 꽃차를 만들기에 전념하다 보니 우울증을 4년 만에 완쾌되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지는 꽃차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고, 보관해오는데 정선 오일장에서 판매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자리를 얻어 조금씩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장날의 부푼 기대감, 불안함 그래도 설렘을 안고 시작하게 된 오일장의 꽃차 장수 놀이. 웃음을 찾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서울 사람들의 원색 옷 물결 속에서 도시의 냄새를 훔쳐 맡고(도시의 소음, 공해) 야금야금 정선군민으로서의 생활을 익숙함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나의 가치를 발산시킬 수 있는 영역. 어떤 것을 잃고, 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를 승화시키고자 라고 마음먹으니 또 다른 곳으로 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면 복지회관에서 모집 중인 기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소 부담도 생겼지만 그래도 도전을 하고, 함께하니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저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습해서 토속음식 축제에서 공연하고, 사북까지 진출하여 공연하고, 그렇게 올해로 횟수로 5년 차가 되는 기타 동아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멈추어 휴식 중이지만 꽃피는 사월이면 보고픈 회원들과의 만남이 있으리란 기대감으로 더딘 시간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홀로 되신 친정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청정한 정선 공기를 맘껏 선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하는 앞산을 보면 더 많은 미래를 꿈꾸며 걸음을 멈추고 자꾸 도시를 뒤돌아보았던 지난날은 모두 잊었답니다. 저의 남은 삶 중 작은 바람이 있다면 '문해사' 자격증을 따서 노인복지에 참여하고 싶고, 건강하게 조양강 물 따라 운동 열심히 해서 정선댁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정선사랑상

2017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로 귀농한 김규성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충남 아산시에서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로 귀농한 김규성입니다.

귀농하기 전에는 작은 가구공장을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가맹점 치킨집을 운영하다 귀농하였고 현재는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에 농지 6,000평을 구매하여 정선에서는 기후가 안 맞아 키우기 어렵다는 편백 나무 농사를 5년째 짓고 있으며 3개월 전부터는 정선 관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이름만 들어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오던 중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신동읍 예미리로 이사 온 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연고가 없다 보니 아는 지인이 한 명도 없고 농사 경험이 없다 보니 농사도 매년 실패하고 도시에 비해 비싼 물가와 문화시설 부족 서울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적응이 잘되지 않아 도시로 다시 이사를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선군 다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가 중국인이라 정선군에서 배려를 해준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선군 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여행 그리고 여러 사람과 인적교류도 갖게 되어 조금은 무료했던 귀농생활에 활기와 생기가 돌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었습니다.

귀농할 때 구매했던 농지와 토목공사로 인해 동네 사람과의 갈등, 금전적 피해와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법률구조공단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으며, 정선군의 도움으로 중국의 처가 방문을 할 수가 있었으며,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문화 체험도 정선군의 도움으로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정선군에 귀농하여 도움 받은 것도 많고 지금은 아내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겁게 직장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귀농했을 때는 정선의 아름다운 풍광의 느낌도 잠시였을 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귀농했기에 낯선 환경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인들도 생겨나고 마음의 여유도 점점 생겨나서 봄에는 농사에 전념하고 겨울에는 최고시설을 자랑하는 하이원리조트에서 아내와 함께 시즌권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해마다 승용차로 30분이면 갈 수가 있어서 편하고 즐겁게 스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도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농사짓는 농지 옆에는 도시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새 삶의 터전을 일구고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이에 저도 용기를 얻어 올해는 제 손으로 아내와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 부푼 꿈에 젖어 있습니다.

어느덧 편백 나무도 많이 자랐고 집에서 농지까지 가는데 작은 터널이 불편했었는데 올해 고성터널이 착공된다니 온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저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깨끗한 임대아파트도 많으며 농사를 처음 하시는 분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교육도 시행해주고 있으며 각종 농기계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며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주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기대나 설렘도 있겠지만 약간의 두려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에 귀농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던 분이라면 공기 좋고 산세도 좋은 아름다운 정선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도시보다도 여유롭고 마음이 편한 정선에 정착한 것이 행복합니다.

편백나무 밭

정선에 어려움 없이 정착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다문화센터에 감사함을 전하며 정선에 정주하며 즐겁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소

(사)정선군농업회의소는 정선군으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3년간 농업인 교육 및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업무를 사무위탁 받아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소에서는 귀농·귀촌 시 작물 선택, 지역 선택, 토지·빈집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귀농·귀촌 보조사업 관련 상담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소에서 상담 시 작물 선택에 있어 정선군농업회의소 분과별 위원장 및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회원분들과 멘토-멘티 연결하여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각 행정 담당 부서와 함께 농업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여 농민·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농업계의 대의기구입니다.

정선군으로 귀농·귀촌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는 정선군농업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방문상담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1 2층

전화상담 : 033)562-3245 / 담당자 : 김보라 상담실장

메일상담 : jskff9815@naver.com

보조금 관련 전화상담 : 033)560-2856 / 담당자 : 진영진 주무관

보조금 관련 방문상담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2층 사회지도팀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skff9815

정선군 귀농·귀촌 이야기

발 행 일 2021년 7월

발 행 인 최승준

편 집 인 (사)정선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홍기영, 귀농귀촌 상담실장 김보라

발 행 처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정선군농업회의소

제 작 정선신문